

한(恨) 및 품앗이의 문화전통이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 영 학 과

남 중 현

(1985. 4. 30 접수)

〈요 약〉

우리 나라 문화특징을 情에 두었다. 이 정에는 恨의 정과 품앗이 정이 결합되어 심층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오늘날의 근대화와 조직행동 양상에 관련된 여러현상을 설명코자 하였다. 역사적인 인과를 밝힘과 동시에 비교 문화적인 접근을 하였다.

The Korean cultural tradition of lamentable sentiments and reciprocal sentiments, and its effects on current organizational behaviors

Nam Joong Heon

Dept. of Management

(Received April 30, 1985)

〈Abstract〉

Sentiments are more particular features than any other of our culture, and It seems to me that their deep structure is a combination of lamentable sentiments and reciprocal sentiments. By such an analysis, It can be sure that current modernization process and organizational behaviors and other behaviors will be more plausibly explained into their particular patterns. I tried to pursue simultaneously historical causality and comparative cultural approach.

I. 글머리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오랫동안의 역사적 침체와 혼미속에서 벗어나 전통사회를 깨뜨리고 근대화과정으로 무섭도록 질주하고 있다. 많은 세계의 이목은 이러한 근대화의 원동력과 성공을 향한 강한 집념과 성취동기가 어디서 유래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자신들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구조적인 모순속에서 고민하고 허덕일 때가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잠재성과 미래의 가능성을 절당하고 그리고 냉철하게 밝히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지금 소용돌이 치며 급변하는 우리나라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에 와 있으며 또한 앞으로 어디로 가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해보고 여기에 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인 낙관적인 대답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견해도 함께함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장점만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섭섭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두운 식민사관의 가면과 그늘 속에서, 모진 열등외적속에서 웅크리고 있어도 아니될 것이며 또한 반면에 민족지상주의의 전시효과적인 성장일변도의 허세를 부려도 아니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족과 문화적 유산을 음미하여 보고 오늘날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생활양식과 행동유형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오늘날 사회구조 및 제도 양상을 어떻게 규정짓는

가를 이해하고자 역사적인 접근을 시도해 본 것이다. 매우 포괄적이며 개발적인 접근의 성적이 되겠으나 좀더 크고 주류적인 전통적 심리구조와 행동양식 그리고 지배적인 문화의 틀을 알아 본 후 그것이 오늘날의 여러가지 현상의 주요원인이 될을 탐색해보자 한 것이다. 민속이나 문화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을 두고 조상들이 생활해 온 가운데 이루어지게 마련인 것이다. 기후 풍토 등 자연적 환경의 영향과 역사를 형성해 가는 시간적인 여러 사건들의 과정 그리고 함께 어울려 가는 사회질과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응해되고 응어리지는 하나의 흐름과 같은 맥락인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점잖적인 생활유형과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대하지 않을 수 없다.⁽¹⁾

여기서 특히 역사적인 접근을 함에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와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는 한국사회는 도무지 서구의 일반화된 이론의 틀로는 설명하거나 적용하기가 어려운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내용이 얽혀서 구성되어 있고 특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서구의 이론이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적용시킴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경제영역, 산업분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많은 각분야에 있어서 파행적인 현상과 문제점을 축출하기도 한다는 반박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실적인 보편성(universality)에 치중한 동시적(synchronic)인 연구에만 만족할 수 없고, 또한 통시적(diachronic)이며 역사적 특수성(particularity)에 관한 분석이 역시 불가피하다는 지론에 자주 접하게 되는 것이다.⁽²⁾

오늘날 비교문화연구가 매우 활발함을 본다. 그리고 각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동양문화나 서양문화의 비교 또는 동양내 여러나라 문화와 한국문화를 현실적점을 기준으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업적은 많이 쌓이고 있다. 사회학 분야에서도 두 사회의 상호간의 특징비교를 하는 시도들이 많다. 그러나 역사적인 과정이나 인과성에 관한 규명을 현실적점의 비교연구 결과와 결부시키려는 일체적 시도는 상당히 드물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공간적 시간적인 총합의 이론적인 결함을 피하는 것이며 구조적 결정론을 넘어선 역사성(historicity)을 아울러 봄으로서 실체를 더 잘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의 단남의 장(場)이 될 것이며 연계학문적(inter-disciplinary) 노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가 생성하게 되는 적응적 조건,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을 밝힌 다음에 이 문화가 다시 다음 세대에 사회구조나 행동양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 특징있는 변형적인 힘(transformative forces)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Eisenstadt의 입장⁽³⁾을 따르며, 또한 문화와 그 사회의 행동양식 사회구조는 친화관계(affinity relation)를 이루고 있다는 J. A. Winter의 주장⁽⁴⁾을 받아들여면서 이러한 논리형식을 따라 서술을 해보려고 한 것이다. 아뭏든 현재의 사회는 민속이나 문화의 형식으로 유산을 이어받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세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며 동시에 민속, 문화와 생활구조적 조건은 서로 상호작용적 상호보완적인 친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입장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유산은 반드시 상징적이고 이념적인 측면만을 취급함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경제구조적, 환경적, 기술적인 생산양식의 변동에 따른 형이하학적인 측면도 보완하여 함께 접근해야 올바른 종합적 접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가능하다.⁽⁵⁾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주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다음의 연구과제로 미루는 것이다. 아뭏든 역사적이며 거시적인 문화의 맥락을 본후에 근대화과정 속에 오늘날 우리들의 행동양식을 이해하려는 것은 모든 미시적인 접근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거시적인 역사성의 맥락과 현재의 사회구조성을 비교적으로 검토하여 공간적 시간적인 좌표

(1) 임동권 지음, 「한국의 민속」, (교양극사총서편찬위원회, 1975), pp.21-35.

(2) 박영신, 경제식, 조해정교수 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박영신은, “역사, 구조적 접근의 일반원리”, (사회학 연구, 1984, 1호), pp. 10-31가 도움을 준다. 그리고 拙稿, “역사성의 여러관점과 권력변화”, (사회학 연구, 85년, 2호) 매명사 pp. 100-126.

(3) S. N. Eisenstadt, *The Protestant Ethic and Mordernization*, Newyork, Basic Book, inc., 1968. pp.1-63. (Part 1).

(4) J. Alan Winter, “Elective Affinity between Religious Berief and Ideology of Management in Two Era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0. No 5. pp. 1134-1136.

(5) S. Clegg and D. Dunkerley, *Organization, Class and Control*, Routledge & Kegan, Paul, 1980.의 책에서 이러한 관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座標)와 위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진공속의 미시적인 조직행동만을 독립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무의미한 접근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⁶⁾ 이러한 한국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사회적 틀의 이해가 없이 획일적인 서구의 합리주의에 입각한 정교한 보편적 이론의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직행동 양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고 변측만 울리고 걸바퀴만 도는 꼴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은 분명히 미개척 분야이지만 그 유용성은 크며 조직행동 이론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안게되는 제약점은 실증적이며 객관적인 접근을 부득이 넘어야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오랫동안 이 과제를 방치해 온 이유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사회 및 역사에 대한 어떠한 인식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연구자의 접근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그의, 연구결과의 적용타당성에도 문제를 심각히 제기하게 된다. 이는 서구의 이론 모델을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서 수정하여 적용함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사회 및 역사에 관한 인식의 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현실적에서 아직 자료나 이해의 부족으로 졸속한 결론을 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정리를 해보는 것은 하지않는 것보다 더욱 발전적일 것이라고 보며 설사 시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직행동연구를 하는 어느 연구자이든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러한 형식의 기존의 인식틀속에 갇혀서 영향을 받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틀의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여 검토해 보는 것은 비록 지금 무모한 시도가 될지라도 조직행동연구를 위하여 부득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한 시도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필자는 우리민족의 두드러진 특성으로서 우선 '情'의 나라라는 것을 부각시켰다.⁽⁷⁾ 이에 비교하여 일본은 '意志' 서구는 '合理'라고 정리하여 보았다. 역사적인 인과로서 밝혀볼 때 유교전통과 가부장제도 그리고 천명사상과 사회정치조직의 병렬구조, 당파싸움, 신분제도의 엄격성과 양반상민의 차별화 그리고 지배계급 및 삼판오리의 수탈과 착취, 삼정문란, 실학사상과 개화운동, 세국정책 등 주요한 역사적 사건과 유산과 특징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情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다시 그 情을 크게 두가지로 지적해 볼 수 있었다. 즉 恨(恨)의 정(情)과 품앗이의 情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또한 이 두가지 情이 결합된 심층구조를 보고자 하였다. 우리의 민족성 속에 그리고 행동양식 속에 恨의 情은 신본구조를 벗어나야겠다는 배방적 권력지향적 출세지향적 성격으로 발전하며, 그 恨의 정서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급속히 움직인다고 보겠다. 한편 품앗이의 情은 어려운 생활여건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대체로 협동적 미풍양속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이며 또한 장기적인 안목의 상호통제적인 情이라고 볼 것이다. 물론 이 품앗이 정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면도 있다. 이상의 이러한 恨과 품앗이의 情은 함께 상호결부하여 오늘날의 행동양식, 생활양식에 뿌리깊게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필자는 보고싶다.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관련하여 볼때 이 恨의 情에 관해서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가 많다. 역사적인 여건에 의하여 형성된 우리민족의 특수한 심리구조일 것이다. 물론 恨을 강조하는 것이 석민사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일컫기도 하고 또한 우리민족성을 너무 나약하게 또는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었으나 우리민족의 유산이라는 설명에 아무래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오히려 문제는 이 恨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점에 달려있다고 본다. 혹자는 우리민족은 이 恨을 생에대한 달관(達觀)의 형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⁸⁾고 보거나 사머니즘의 무속신앙으로 발전시키며(오늘날의 갑작스러운 기독교도의 팽창과 그 형식도 이에 무관하지 않은 예라고 본다), 아니면 문학이나 예술의 경지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생활양식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양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恨을 나쁜 의미로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이미 恨의 情의 본래의 의미는 없어지고 생활유형에 스며들어서 유산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자 하인 것이다. 그리고 품앗이의 情은 김주희교수의 글 '품앗이와 情'이라는 논문⁽⁹⁾

(6) 기존조직이론의 틀의 혁신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다. 타성에 젖은 조직이론이 지극히 피상적이며 기술의 기능적인 연구수준에 떨어진 이유도 여기에 연유한다고 본다. 오세철, 「조직행동」, 박영사, 1981, pp. 9-13.

(7) 민족적 특성을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흔히 결론이 나지 않는 논쟁에 이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의 필요성때문에 평균적인 한국인의 특징을 이렇게 가설적으로 규정하여 보았다.

(8) 이어던교수는 「속초지방의 일본인」(고려원, 1982)의 저서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일본과는 달리 한을 응어리지우는 것이 아니라 넓게 풀어나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9) 김주희, "품앗이와 情" 「한국인과 한국문화」, 韓相編(編), (서울, 심선당, 1983), pp. 126-141.

에서 크게 감동을 받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해 본 것이다. 필자가 여기에 논문의 주제를 가능케 한 것은 그의 영향이 컸음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다. 다만 차이점은 그는 품앗이의 情은 수평적인 관계의 情이라고 본 반면에 필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고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발상이 정치현상이나 기업의 리더십유형을 설명하는데 특히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필자는 이렇듯 한국 민족성은 情의 성격이 매우 강하며 그 情은 恨의 情과 품앗이 情으로 특징지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양자가 결합되어 있는 유산은 오늘날 우리민족의 행동양상과 행동반경을 설정해 준다고 본 것이다. 恨의 情은 행동의 목적지향적인 情으로서의 역할을 갖으며 품앗이 情은 수단적인 情의 의의를 갖는다고 정리하였다.⁽¹⁰⁾ 이러한 목적적 情과 수단적인 情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조직행동의 양상은 크게 과잉적 응적 권위주의 행위성격, 신분구조의 재편성, 허세와 눈치의 발달, 유언미어의 취약성, 다수의 횡포,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조직내 역할갈등, 인맥을 중시하는 연고주의, 이기적 가족주의, 강한 성취동기, 인화 및 상부상조정신 등의 특징들과 연결시켜 볼 수 있었고 구체적인 서구의 여러 경영기법들이 어떤 이유에서 적용될 한계를 갖는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논술을 함에 있어서 검증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가설의 체계로의 형식밖에는 안될 것이지만 개략적인 사고의 틀을 우선 만들어 본데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어느정도 완벽하든지간에 그 틀의 필요성은 조직행동의 이해를 위한 선행되는 인식으로서 불가피하다는 사고때문에 비록 무모할지 모르나 한국인으로서 직관을 함께 동원하여 이러한 시도를 해 본 것이다.

II. 한(恨) 및 품앗이의 情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성과 민족성이 情에 있다고 생각된다. 감정이 다른 민족에 비하여 보다 풍부하며 예로부터 민족을 보더라도 情의 포용이 능후하고 情감이 듬뿍 담긴 예술이나 詩歌나 그밖에 해학 가무 유희 등이 넘치는 것이다. 가급적 둥글둥글하게 세상을 人和나 조화로써 살아가려는 실성인 것이다. 싸움과 무리함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한다. 즉 마음이 가는대로, 정서가 흐르는대로 大勢의 흐름을 쫓아 천명의 흐름을 쫓아 거역함이 없이 조화와 자연스러운 삶을 지향하는 습속을 나타낸다. 이렇게 情과 정서흐름을 중시하는 심성은 삶의 괴로움을 탈관하고 초월하는 형식의 恨을 풀이하는 情의 표현일 수 있으며 또한 역경속에 상부상조하는 호혜적이며 쌍무적인 오고가는 情형식의 품앗이 情일 수도 있다. 어느 것이든 이러한 情의 흐름은 우리들의 문화전통으로서 우리의 행동방식을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도록 하였다. 서구에서는 이에 반하여 理性이 극도로 발달되는 합리주의적인 풍토이다. 서구에서는 理性이 존중되고 일찌기 르네상스나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과학주의 실증주의 객관주의 정신이 투철하였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계몽주의 사상은 시민혁명을 발발케 하였으며 민주주의 제도를 꽃피웠던 것이다. 이렇듯 서구의 문화와 민족성은 이성에 대한 존중과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능력주의, 능력, 영리주의, 자유계약사상, 자본주의, 공업화, 기계발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낳게하였다. 대체로 서구와 동양의 사이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이 없이도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의 비교는 미묘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더욱 특징있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정서의 나라라고 한다고 한다. 일본은 신의 나라 또는 의리의 나라라고 할 것이다.(집단내의 인간관계에 관해서이다). 같은 동양권에 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볼 때 유사한 점도 많지만 차이도 매우 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 비교문화적 인식은 일본의 역사적 전통을 사전에 이해함으로써 더욱 한국의 문화와 민족성의 특징있는 부분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일본의 행동양식과 인간관계는 무조건적인 충성이며 일방적인 헌신이 요구되며 절대적 비타산적인 관계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쌍방적 호혜(互惠)적이며 상대적인 타산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우리민족의 특성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를 일본의 경우 그 역사적 전통과 원인을 역사적이며 동시에 비교문화적으로 캐보는 것은 우선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¹¹⁾

(10)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수많은 가능한 설명중에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그렇듯하다고 하여서 여러가지 대안적 설명을 많이 나열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이다. 평균적인 특성을 찾아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루트. 베네딕트著, (金充植, 吳麟錫譯)「국화와 칼」(울유문교) pp. 9-11.

일본의 문화는 동양권에서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 패륜제통이외에 남방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주변의 여러나라와는 달리 중국에 일찍이 정치적 문화적 종속됨이 적고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행운이 있었다. 가끔 대외세력과 전쟁하는 경우라야 몽고족과의 싸움과 이차세계대전의 외국과의 전쟁뿐인데 모두 본토와 떨어져 있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문화의 보존, 사회의 전통성이 독자적으로 독특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컸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볼 때도 산들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매우 가파르고 물결이 매우 급하여 고을과 고을사이를 잇는 경로가 매우 애로가 많아 일본국내에서도 마을마다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¹¹⁾ 그리고 이것은 마을마다 독자적인 권력단위를 형성시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 이 사회를 지배하는 형태는 당연히 봉건사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봉건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중앙집권적인 관료 정치체제를 이루었고 또한 가문단위 중심으로 권력이 배분되고 지배되는 집대양권과 봉건체제의 중간형태의 특징을 이루었다고 볼 것이다)⁽¹²⁾ 권력은 가장 세력있는 고을의 장 즉 소우군(장군)이 지배하게 되었다. 다른 고을을 지배하기 위하여 첩자물 보내고, 다른 고을에서 인질들을 붙들어두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등⁽¹³⁾ 다른 고을의 세력부상을 감시 억제하는 지배형태를 취했다.⁽¹⁴⁾ 그리고 반란자에게는 매우 엄격한 형벌이 가해졌다. 때때로 봉건영주의 주권이 모두 함살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따라서 봉건영주와 마을사람들은 지배자의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저히 단결하였고 역으로 중앙에 물결 첩자들을 보내었으며, 마을사람들은 상대권에서 보내온 첩자물 간첩 같이 잡아죽이는데 단결이 되었으며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은 서로 견제관계⁽¹⁴⁾에 있었으며, 각 마을의 자계의 단결이 지극히 요청되었다. 이것은 집단사이의 투쟁의욕이 발달하게 하였고 한 집단내에서 한사람이라도 배신자가 나타나는 날이면 그 집단이 몰살당하거나 존망이 그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봉건영주는 자기 자신과 자기관할하의 마을사람들이 지배자나 다른 봉건영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철통같이 단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을사람들끼리 단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동으로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 의식이 매우 강하여 집단을 배신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지배적인 의식이 집단문화로서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집단중심 가부장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전통이 되었으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잘 봉치는 경향을 지닌다. 그리고 공동체 의식, 동고동락할 해야하는 입장에서 지도자는 유능한 사람이 반드시 선출되어야 하므로 그 집단의 최고 권력자는 반드시 장자상속이 될 필요가 없었고 유능한 자가 양자가 되어서 권력이 전수되는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 가부장제도는 가족의 장이 항상 지도자로 나타나며 국가이든 가정이든 권력계승이 장자상속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 지도자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게 되었다. 아홉촌 한 마을의 지도자이든 추종자이든 마을 전체의 생활을 위하여 함께 집단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인격화 의리의 문화의 규범속에 강하게 지배를 받게 된 것이다.

일본의 종교를 살펴보면 원래 신도(神道)라고 하는 민족종교와 불교가 전통적으로 전수되어 왔다. 그뒤에 토쿠카와 이에야스가 집권했을 때 일본사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유교를 통하여 신분을 강조하는 정책을 썼다. 즉 사농공상 신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신분차별정책이었다. 따라서 일본사회에서 유교는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의미가 다분히 있었고 또한 유교와 불교는 반드시 양자택일의 입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합병존하는 것이 가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유교가 들어옴에 따라서 고려시대에 융성했던 불교가 조선 시대에는 사회에서 추방되고 승려들이 천민으로 전락하는 예가 있는데 이점이 다르다고 하겠다) 일본에서는 유교가 승려에 의하여 전수되고 가르쳐지는 정도가 많았으며, 일반신양자 중에서도 불교를 믿으면서 유교경전을 같이 공부하는 자가 많았다. 일본의 종교적 심성은 그 사회가 권력적으로 다원사회이며, 그 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문화로 일반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각기 지방색이 특이한 문화를 이루고 있으며 종교에 대해서도 매우 융통성 있고 신축성 있는 경향도 보인다. 어느 종교든지 복합하여 믿어도 좋은 것이다. 기독교의

(11) 김응운, 「일본인과 한자인」, 뿌리깊은 나무, 1981, pp.36~59.

(12) 조선시대는 봉건적사회이나 봉건적 체제의 봉건사회는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선은 서구와 일본의 봉건체제의 속성도 많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13) 외국정벌을 위할지되는 봉건영주들의 군사력을 해외로 제거하기 위함이며, 우리나라의 봉신사들을 용서하게 겁대게 하는 것은 재정을 고갈시키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있다.

(14) 일본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경제심이 매우 뿌리박혀 있다고 할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조건 철결해 봄으로써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두려움에 대한 조야림의 습성이라고 할 것이다.

성모마리아 상이 관음상(觀音像)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¹⁵⁾ 유교도 국지적으로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여 졌으며 학문적 수준에 머무는 듯했다. 이것은 중국대륙의 막강한 권력하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될 운명에 처해있는 입장에서 소위 대국의 유교를 생존적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압력의 정도와 그 역할이 한국과 비교해 볼때 크게 서로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 물론 유교사회의 전통은 가부장적 집단의식에 신분의식 층상사상을 강조하는 보완의 역할을 한 셈이다. 이러한 신분의식의 경직성은 토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강화되고 계속 되어 오늘에 이른다고 하겠으며 사회적 이동이 국가체제의 정책적 배려로 불가능한 현상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인들은 옛날에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거제도란 없었으며 같은 사농공상 신분제도에서도 그 계급의 차이가 있으며, 그 계급을 벗어나는 기회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즉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는 자포자기의 상태, 체념의 상태인 것이다.⁽¹⁶⁾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잠재성과 박탈감은 자주 히스테리한 폭발성이나 공격성으로 나타나고 마즈리와 같은 축제행사 때에는 발광하는 행동양상의 모습은 이를 잘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축적된 억압된 무의식의 심리가 반작용으로서 어떤 속죄양이나 분출구를 찾아 대외적인 공격성이나 파괴성의 군중행동의 현상을 너무나 쉽게 나타내기도 한다.⁽¹⁷⁾ 집단의식, 신분의식은 도제제도의 형식을 거치는 동안에 오야붕-교봉의 엄격한 신뢰관계로 굳어져 일단 맺어지는 이러한 관계는 일생을 따라 다닌다고 할 것이다.⁽¹⁸⁾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배반적인 행위는 일본문화에서는 극히 배척적이며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집단사이에 갈등이 일단 생기면 그 전투성은 상호 치열하다. 따라서 일본사회는 구성원들이 신분의 변화가 불가능이라는 의식이 지배적이어서 사회구성원이 자기발전을 도모하는 경우는 자기에게 신분적으로 주어진 영역에서 전문가(expert)가 되는 길이다. 그리고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만족이며 자신이 상사를 물리치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가령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여기에 최고기술을, 양복을 만드는 사람은 여기에서 최고의 기술을, 학문하는 사람도 자기 자기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전직(轉職)의 경향이 적다. 전직은 일종의 배신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이동에 의한 신분상승은 인정되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주어질 분야에서의 아성을 쌓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한국사회에서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정치관료의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역할이동이 비교적 용이하고 이러한 이동을 통하여 신분향상을 꾀하려고 한다. 예를들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공업기술자들도 만약 지위가 높아진다면 자신의 본래 역할인 기술을 버리고라도 지위가 높은 관리적 역할을 기꺼이 취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한 문제로도 나타난다고 본다. 적당한 곳에서 좀더 부연하기로 한다.) 이러한 신분귀속 의식은 오늘날 일본의 산업기술사회에 적절히 잘 이용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가부장제 집단의식은 사용자와 자본가가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이러한 전통을 활용하게 되었으며⁽¹⁹⁾ 사용자는 온정주의, 노동자는 충성의 개념으로의 상호신뢰관계로서 묶어지게 된 것이다. 일본의 근로자는 만약에 기존의 조직속에 인간관계에서 그 연결이 끊어지는 것은 자기의 실망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의 근로자는 상사로부터 신임을 받은 것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며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러한 신임관계 지향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상사와 부하간의 호혜적인 풀앗이 정의 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서구에서는 보상을 주는자와 받는 자의 관계 때문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것과 비교할만 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하급자가 상급자를 물러서는 경우는 생각하지 못한다. 이러한 연결의 체계, 인간관계의 형식은 연공주의(年功主義)로 나아가며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신분관계를 흐트러 놓는 인사관리를 하지 않으며 또한 근로자도 이것을 기대하지 않는다.⁽²⁰⁾ 이러한 연공서열제의 신분의 안정성은 어떤 기술의 전수의 면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15) 新日本教育圖書株, 「えとす」第6號, 1976, pp.36.

(16) 일본민족의 의지는 강박관념속에서 형성된다고 봄이 옳다고 생각된다.

(17) 군중행동의 정신질환자 성격과 군중행동을, 또한 군중들의 해방감, 안도감, 위대한 힘의 경험, 평등의식의 경험, 이로 말미암은 속죄양구, 광란성, 공격성, 잔인성을 Canetti의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에 잘 서술되어 있다. 拙稿, 「경보사회의 권력구조와 군중행동의 위기」, 현상과 인식(84년 겨울호) pp. 9-34.

(18) 中根千枝, 「タテ社會の人間關係」, 講談社, 1967, 參照.

(19) 최중대, 「현대노사관계론」, 경문사 (1981), pp.225-260.

(20) 이에 반대의 견해를 갖는 논문이 있다. W. Brown, "Japanese Management," *Monumenta Nipponica* 21 (1966), pp. 47-60.

에 인식함을 없게 한다. 아무리 자기의 기술을 하급자에게 넘겨주고 하급자가 더 유능하게 되어도 상급자와 하급자의 신분관계는 안정되어 있으므로(또한 동급끼리도 마찬가지다) 어떤 기술이나 정보를 경쟁적인 이유에서 독점할 필요성이 적은 것이다.⁽²⁰⁾ 그리고 신분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업원은 평생 직장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함으로 인적투자가 활발할 수가 있다. 이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교류에 기여한다(한국의 사회는 경쟁의 심리 때문에 자신의 기술이나 정보를 남에게 넘겨주지 않고 독점함으로써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서구도 역시 마찬가지의 심리가 작용하였으나 제도의 합리화로 극복⁽²¹⁾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일본에서의 義를 중요시 하는 사회, 공동체원리, 일체감, 소속감을 중요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조직, 직장중심의 인간관계로 파악되는 것이다. 그들은 우정의 관계보다 직장사람들 사이의 情과 義를 더 높이는 경향이 있다. 즉 우선순위는 직장인의 인간관계가 앞선다.(한국의 경우는 그 반대인 것이다).

일본의 역사적 연원으로서 그 내역을 살펴볼 때 공동체원리 중심의 집단주의의 발달과 義의 관계, 그리고 무조건적 일방적 충성이 요구될 수도 있는 의리의 문화사회, 배설이나 신의이냐의 문제가 중요시 되는 특징을 지닌다. 일본 사회는 신분의 안정성과 신분개선의 체념, 겸양의 도, 그러나 억눌림의 잠재성이 폭발적인 공격성을 지니거나 히스테리한 정신질환적 행동과 관련성을 보일때가 있다. 그러나 이렇듯 전인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집단주의의 일본사회의 전통은 오늘날의 일본사회의 산업풍토와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근대화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인간관계는 상부상조적인 쌍방 호혜적인 관계이며 상대적이며 주고받는 情의 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신분구조 등 억눌림에 의한 恨의 정도는 일본보다 신축성이 있어 신분구조의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지니며 따라서 역할고착이 아니라 권력과 신분의 향상을 쫓아서 꾸준히 역할이동을 하고자 하는 출세지향적 성향을 나타낸다. 관계성을 특히 중요시 하여 눈치가 발달하고 때로는 허세를 나타내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어떤 인맥을 맺는 것이 사회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며 사람들의 행위에 있어 예절성과 불입성이 강하다고 하겠다. 이는 집단속에 아예 몰입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일본식의 생활방식이 든지 실질과 소신에 의하여 개별의 구체적 이익을 쫓아 행위를 하는 서구문화와도 다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대륙적인 큰 권력의 영향속에서 자구책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독특한 정치체제의 역사적 전통에서도 비롯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신분개선도 관계를 통하여 향상시키는 방법론이 지배적인 풍토이다. 이것이 집단적인 이해관계에 의한 양극화의 투쟁에 의하여 자신들의 신분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 서구의 관점과 다른 것이다. 인간관계가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또는 오고가는 情에 의하여 규정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행동양식은 상호호혜적 관계가 사회생활의 성과로 나타나게 되며 또한 비공식조직의 중요성이 심대화 되는 것이다. 아뭏든 권위적 적응주의, 출세지향의 경향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인과로서 분석해 봄으로써 좀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이 대륙과 밀접되어 있다는 사실과 유교의 전수과정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하고자 한다.⁽²²⁾ 한반도는 국경이 대륙과 접하여 있고 국경이 불안정하여 항상 국경분쟁을 경험하여 왔다.(반면에 일본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통일국가로서 확실한 국경을 유지하는 잇점이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적 계속성은 한국과 달리한다. 일본의 황실은 끊임없는 변동을 겪어도 상징적인 존재로 여전히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막부에 의한 하부적인 권력변화만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볼때 산악이 그리 험난하지 않고 마을과 마을의 연결이 대체로 잘되는 편이어서 독자적인 권력단위가 형성되는 것이 어려웠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권력집단이 있어서 일시 고구려때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권력적 경쟁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종속되며 국내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 전체가 일본과는 달리 중국으로부터 심대한 영향을 받게되었고 중국의 정치향방에 항상 관심을 두고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우리나라 왕들은 대부분 대륙으로부터 권력보장의 승인을 받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호족들도 독자적인 권력을 형성함으로써 중국대륙으로부터 막강한 권력보장을 받은 왕권과 경쟁하여 자주성을 구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었으며 어디까지나

(20) 경쟁에 임하는 집합의식으로서 우리나라는 개인 또는 가족단위임에 비하여 일본은 기업단위, 민족단위의 규모로서 집합의식이 규모가 더 큰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 보다는 일본이 작다. 오세철, 앞책, pp.134-135 참조.

(21) 개별보장이 아닌 집단보상제도인 Scanlon Plan 같은 것이 그 예이다.

(22) Kang Pyung-Kun, Sub-Bureaucracy and Community Substructure of the Yi Dynasty; *Korea Observer* (A Quarterly Journal, Vol. II, No. I Oct, 1969, The Academy of Korea Studies), pp. 68-83.

관계 지향적이었다. 상대의 침범으로부터 보호할 독자적인 요새를 구축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였다. 오히려 좀더 상위의 권력에 종속되고 관계를 개선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행위패턴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여 왕이나 호족들이 국법이나 군사에 관한 관심이 적었다.⁽²³⁾ 즉 적응적인 권력지향이 나타났던 것이며 이것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호족들 사이에는 독자적인 권력을 형성시키려는 통합과정이나 절경 싸움이 일본의 봉건영주들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전개될 필요가 없었으며 오히려 상위의 정치체제와의 인간관계 유지에 주력하였으며 어떤 연줄을 잇는 일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집안에 그렇게 많은 사병도 볼 필요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이것은 피육을 사기에 알맞은 일이라 삼가했던 것이다. 연줄을 잇는 방식은 혼인을 통하여 맺는 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혼인과 가문을 통한 권력자와 관계개선은 중요한 관심사였다. 왕의 권위는 질명사상에 의존하였고 또한 실제적인 힘의 배경은 중국의 정치질단으로부터 위양반은 형식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신들도 작인들의 지위나 권위는 스스로 형성시키는 실질적 세력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인간관계의 권력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왕도 자신의 통치과정을 주위의 신하들을 통하여 행사하였으며, 이들 신하들에게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왕의 위치가 왕만이 지배하였다. 왕은 대체로 왕과 인연을 맺어온 신하들과 친척 또는 혼인관계를 맺게된 친족들에게 통치권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왕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였고 신하들의 눈치를 어느정도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상왕의 영향도 있고 또한 작기보다 있어본들이 신하로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신하들의 경우도 각기 작기를 배경에는 자기들과 관련을 맺은 많은 지방의 양고자들의 무리들이 가족관계를 맺으며 인연을 맺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사람의 호불호, 편견이나, 그들의 행실을 다질 때는 다물고 당사자만을 고려할 일이 못되며 그 배후를 고려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세력배분상의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지방에 일명빈은 권력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지방의 유지들을 원부로 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지방의 유지들은 서울의 궁단의 세력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관청이외의 권력기관과 같은 비공식적인 양반가문의 세력집단이었는데 소위 향안(鄉案)과 같은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관청은 이들 유지들의 집단과 배시에 상의를 하며 또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득해한 무리인지 형편을 해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왕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에 이르기까지 조직적 인맥관계를 맺은 집단은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는 것이며 지배계급 상호간에는 서로 호혜적인 지원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호혜관계가 단절된 하부영역에는 불평등과 억울함, 박탈, 착취, 약탈 등 비인간적인 처우말음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배계급은 양반계급, 귀족계급이 된다. 피지배계층은 상민계층, 노예계층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왕을 중심으로 한 긴밀한 인간관계는 봉건제도 또는 지방의 독자적인 권력의 형성은 어렵게 만들었으며, 반면에 중앙집권적인 형식을 갖으나 뿌리깊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웠다.(그밖에 강력한 왕권이 발동되기 어려운 이유로서 관계사업등 대사업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드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신하들 사이에도 군사적인 무력의 충돌이 거의 없고 다만 정치적인 파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음모와 당파싸움이 많이 생겼다. 왕이 왕족중에서 나타나며 또한 왕은 중국으로부터 권위를 위양받고 통치의 명분을 얻게되고 신하들은 왕족과 연계되고 호족들은 신하 및 중앙의 세력과 긴밀한 결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왕권이 발동될 수 없었고 또한 국법의 적용을 확실히 하여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 수가 없었다.⁽²⁴⁾ 따라서 분치과정에서 어느 한사람의 행위만을 상대로 할 수가 없었고 왕은 그 이후의 세력과 인간관계 결속에 신경을 쓰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상벌에 관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이러한 특연의 지배현상에 더욱 축진되는 역할을 한 계기를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유교가 국교로 승인되는 사건이라고 하였다. 유교가 조선조에서 받아들여지는 때는 그 적합한 조건이 있다. 이성계가 유교신봉자들이 권력의 지지를 얻어 건국한 후 유교국인 명나라와 거의 오세기동안 조공관계 및 국교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조선왕조시대의 정부구조의 변경, 행정정책, 지방행정이 매우 심대한 영향

(23) 권의 대립이 아니라 연줄의 대결의 전봉을 말한다.

(24) 熊純如, 『朝鮮史入門』, 朝鮮史研究會, 1983.

과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성계가 권력을 계승한 후 유교사상을 강조하게 된 필연성은 첫째, 그는 정치에 무지하여 유학자들의 압력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둘째, 천명사상을 유도하여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세째, 충효의 윤리가 절대복종의 원리에 입각한 중앙집권체제수립의 열망에 알맞았고, 비째, 불교세력을 추방시키고 재산을 박탈한 명분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실제적인 현실과의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맹목적인 교방에 치우침으로서 형식성이 높았는데 이는 일본이 수정하여 적용수용한 것과는 대조적인 경향이라고 하겠다. 중국대륙에 조심하는 입장은 그들이 신앙하는 유교를 성스럽게 두려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유교가 언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며 시초에 어떤 수단으로 처음에 들어왔느냐는 그 결과에 많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분히 형식적인 수용에 치중하였으며 유교가 지향하는 원리(principle)나 근본 취지는 간과하고 형식적이고 행위규범적(rule)인 측면이 강조되었는데⁽²⁵⁾ 이는 여유있게 비판적으로 유교를 받아들인, 그리고 성스럽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절대적인 관념, 강박관념으로 중국으로부터 유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능했으며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원리를 추구하며 여유있게 받아들이는 일본과는 대조적이 될 것이다. 유교가 들어옴으로써 유교정권 및 중국의 고전이 널리 읽혀지고 이것을 과목으로 하는 과거시험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것이 출세의 길이였다. 유학자들이 정부의 요직을 독점하며 독재하였고 불교는 반대로 몰락하여 정권이 소극당하고 재선이 몰수당하다 승려는 궁전밖으로 추방되었다. 이러한 위사선택은 일반인들의 종교적인 신심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대륙과의 관계가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성계는 전국시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귀족층들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여 전국공민들에게 토지의 노예를 하사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수립코자 하였다. 중앙 관직에게는 서울부근의 땅을 주었고, 군부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변방지역을 할양하여 외척의 침입을 막게 하는 동시에 중앙권력으로부터 이들을 격리시켰다. 이씨왕조의 왕권은 초기에 상당히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전국후 1세기가 지나자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일이 균열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16세기경부터 시작되는 당파싸움의 발아적(發芽的) 양상이며 그 진행과정은 유교적 원리에 바탕을 둔 중국말기의 멸망과정과 흡사하다. 그러나 조선의 분열상은 중국과 비교할 때 더욱 극심한 지경이라고 할 것이다. 당파싸움의 극성은 뿌리깊은 비공식(informal) 조직들이 강력하게 대두됨으로써 이것이 사회의 기반을 흔들었다고 볼 것이다. 조선사회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관료체제와 함께 토지소유체제 자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왕조초기에 개국공신들에게 땅과 노예를 하사하였고 계속 여러 왕의 계승을 거칠 때마다 추가 하사가 있었는데 계승의 명분논쟁이 있을때 더욱 그러하였다. 정치지향적인 이러한 토지대분은 관료체제의 유교를 신봉하는 소수특권계급에 집중되었고 새로 등장한 관리들에게 부적절한 불평등 배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땅문제는 빈번한 전쟁과정에서 많이 소실되었고 면세받는 땅이 증가하여 세수(稅收)가 줄어 국가재정이 고갈상태에 이르고 관리들의 급료가 감소하여 정부내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농민들의 부담도 일층과 증하여 빈증이 전염하고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관리에게 집중된 토지소유는 관리과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토지 및 관직을 가진 자는 특권계급, 명예계급으로서 양반계층이라는 한정된 엘리트 계급의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이 양반계급의 특권과 신분사회는 매우 엄격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이 상하 관계는 지배자와 피압박계층간에 원한의 관계를 낳기에 충분하였다. 필자는 여기에서 恨의 근원들을 이끌어 낸다. (그밖에 외척의 외세가 또한 원인이 된다.) 양반계급은 특권계급의 이기적 동기에 의하여 정부관직과 토지를 독점하기 위하여 더욱 계급차별화를 꾀하였고 마침 유교이론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명백히 구분시키는데 알맞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계급지향적인 조선사회를 나아가는데 촉진적 역할을 하였다.⁽²⁶⁾ 조선사회는 획일적인 유교이념에 의하여 지극히 정제된 사회였으며 사회적 분화가 불용(不容)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낳은 중국문화의 이식, 토지의 비효율적인 배분형태에 이른 것이다. 경제적 역할이 명시되어 경제사회발전이 침체되었고 유학 및 관직경쟁의 치열함은 젊은 사람들의 시간과 정열을 중국의 문학과 유

(25) W. Schluchter, *The Rise of Western Civilization: Max Weber's History* (translated by G. Rot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p.20 참조. W. Schluchter의 rule과 principle의 구분기준은 의미있다고 본다.

(26) 계급지향성 성향은 가문내 가족내의 관계에서도 엄격히 나타난다.

교정전을 억지 암송하는데 송두리채 바쳐졌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학은 인중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사람들의 사고를 경직화시키는 것이며⁽²⁷⁾ 응용성이 적은 극히 보수적인 신분사회체제에 기인한 것이다. 유교는 충효사상을 내세우게 되었고 기왕의 인척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구실을 하였다. 경적인 신분관계를 만들고 또한 차별화를 엄격하게 하였다. 유교의 받아들임이 유교의 원리나 본질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차별화 신분화를 위한 규범적 속성, 피상적인 속성이 강조되었다. 이렇게 하여 구축된 신분체제는 매우 견고하게 되었고 또한 세력들은 유림들을 지방에 양성시킴으로서 자신들의 파벌과 또한 위의 관제들을 중흥으로 확대해 나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세력확장을 위한 관제맺음 차원의 행동양식은 호혜적인 품앗이의 情의 생활형태가 비단 피지배계층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배계층에서도 같은 원리의 형식이 되어 나타난다는 한 증거가 될 것이다.⁽²⁸⁾ 그리고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유교는 가족주의를 강조하였고 한 개인이 소속해 있는 인맥을 중시하고 그 인맥의 소속근거는 가족에 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통치하는 방식도 개개인 상대로 하지 않고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가문중심으로 다스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계급의 문제는 가문중심으로 다루어지게 됨으로서 가족구성원들은 가부장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지위향상을 꾀하게 된다. 가족일원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관직에 밀어넣기 위하여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하게 되고 어느 관직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관직의 획득이 자신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친지들의 합심의 노력의 결실이란 점을 잊지 않고 역으로 가족친지들에게 그 호혜적인 보답의 노력을 하지 않을수 없었던 것이다. 어느 한사람이 출세하여 별면 이러한 대가족제도하에서는 가부장의 관리하에 그 수입을 모두가 나누어 갖는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행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특수주의 인간관계속에 얽힌 연고주의, 정실의 풍토때문에 공정한 행정, 객관적인 행정을 기할수 없었다.⁽²⁹⁾ 가족단위의 통치를 하는것, 가부장을 대상으로 국가가 법적용의 통치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교통, 통신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이는 유교의 이념속에 가부장제도를 내포하고 강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국가의 통치기술과도 관련된 것이다. 국가는 가부장제도를 통하여 가장(家長)의 지위를 통솔자 대표자로서 그 지위와 권한을 향상시켜 주는 동시에 무거운 의무를 부과시켰다. 이 당시에는 교통통신수단이 미미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통치력이 각 개인 한사람 한사람에 이르기까지 섬세하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를 조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조단위를 가족으로 삼고 가부장(家父長)을 대표로 설정하여 주로 가부장을 상대로 법률관계를 맺어왔던 것이다. 가부장은 이러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솔들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로부터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부과받았기에 때로는 가족들을 강력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기도 하였다.⁽³⁰⁾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이때 가정의 의무는 호주친고의 의무, 가족혼인에 대한 의무, 납세의 의무를 지며 또한 가족의 범규위반에 대한 감독의무가 부과되었다.⁽³¹⁾ 따라서 예를들어 가령 만약 딸이 30세가 넘는데도 시집을 보내지 않으면 가정이 문책당하거나 처벌을 받고 또한 자기 가족성원 구성원중 누구가 범법을 하더라도 범행당사자 보다는 가부장이 대표하여 처벌되었으며 노비 또는 부녀가 가출하여 유숙(留宿)을 한다면, 사회질서 및 풍기를 문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가부장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처벌받는 등 매우 무거운 주의 감독의 의무가 부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은 가족에 대하여 절대적 권한을 필요로 하였고 가솔들은 가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충효사상과 윤리의 맥락으로 결부되었던 것이다.⁽³²⁾ 따라서 가족들은 가장을 중심으로 함께 뫼치지 않으면 안되었고 동고동락을 하는 단위가 되었다. 대가족제도하에서 내깃베깃 구분이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물론 당시에 축첩제 중혼제 등 남녀차별의 악습과 분재(分財)에 있어서 장자(長子)가 대부분 상속하는 등 불평등한 관계가 존재하였지만 이는 가부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부수적으로 파생된 관계라고

(27) N.S. Eisenstadt의 flexibility에 대한 이해를 함이 유익하다. *The Protestant Ethic & Modernization*, 안택, 알칼.

(28) 김주희교수의 “품앗이와 정”에 관한 글을 확대 해석해 보는 내용이 된다.

(29) 박영선글, “한국사회발전론 서설”(『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다』, 한국사회학단, 1984), pp.259-272. 보편주의 정신과 개방성 결여를 논하고 있다. 가족집단적이기주의로 파악하고 있다.

(30) 관청으로부터 가부장은 문책과 형벌을 받을때가 있는데 판의 입장은 책임대상으로서 남자가 직결했을 것이다. 여성도 이점에는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동의했을 것이다. 가부장제도가 남녀차이를 갖게한 이유는 이러한 점으로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1) 박병호, “한국전통가족과 가정권”, 『한국학보 2』, 1976, pp.67-93.

(32) 책임과 의무의 상응현상이라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쫓는 주로 가정의 권력과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이념으로 권력을 위한 매개 의미로서 활용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서의 쫓는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잠재성은 그 자체에 내포했다고 볼 것이다.

보아야 할 것이다. 불평등의 관계는 비단 남녀관계 뿐만 아니라 노소 관계에도 나타나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고⁽³³⁾ 노비들도 주인에게 매우 엄격한 관계하에 놓여있었다. 그리고 통솔상의 안전성 때문에 적자서자의 구별도 불가피하였다. 즉 신분차별화의 현상이 모든곳에 심화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부장제도는 더욱 확대하여 친족의 단위까지 포함하며 가문단위로서 가문 어느 문중의 구성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때 법적 정치적으로 그 가문의 최고의 어른이 책임을 지거나 얼굴에 먹칠을 당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문중의 어른은 그 문중의 대표였고 그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통솔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가족중심주의 전통을 남기는 역사적 요인이라고 보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국가의 왕에게까지 확대된다. 나라전체가 가족의 관계로 잘 맺어져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왕도 가신들과의 관계는 그 자체가 가족의 관계와 비슷하다. 왕은 국가의 최고어른으로서 받들어지는 것이며 총과 효가 일치되어 만나는 것이었다. 물론 가끔 총과 효가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때 효가 우선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가 가족주의에 의한 생리가 깊고 가족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며 자구책을 찾는 듯하다. 나라전체가 가족주의에 의하여 지배받고 형성됨에 중앙에서부터 지방의 통제는 가족주의의 윤리에 의하여 가능하였다.⁽³⁴⁾(일본의 경우는 군사적 무력적인 통제였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일본이 봉건제도로써 더욱 분권적이며 동시에 역할분화가 잘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동시에 역할분화가 어려웠던 것도 이러한 전통에 의거한 것이다. 아 물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사회구조는 가족주의 인간관계로서 뭉쳐진 나라이며 최고권위인 왕을 중심으로 이 관계를 좀더 잘 유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경쟁적 갈등이 다소 있었을 뿐이다. 왕권에 도전하여 어떤 독자적인 지방권력을 세우려는 움직임은 처음부터 불가하였고 또한 그러한 경향도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맺음에 성공한 가족들은 지배계층으로서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영화를 누리며, 그렇지 못한 가족들은 인생을 굴욕과 역울한 속에서 지내게 된다. 관계맺음이 경쟁적인 것은 가문단위의 신분구조 변화때문이며 가문단위로 뭉쳐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탈락하여 상민 천민으로 낮아지게 되면 이들의 가족은 명예를 잃고 실상은 그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다. 즉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윤리관이 붕괴되는 것이다. 상인이나 노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자기들의 아내가 양반들의 노리개가 되어도 아무말도 할 수 없었으며 자기의 자식이 어느 양반의 씨로부터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렇듯 몰락한 가족은 실상 윤리가 무너지고 유교가족이념의 도리를 따를수 없다. 실상 신분의 몰락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이와같이 가족주의단위로 좀더 나은 가문과 관계맺음을 성공시키는 것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문을 빛내는 것은 일대 지상의 과제가 아닐수 없으며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 혼인관계를 잘 맺는 일이었다. 결혼하지 못하고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람구실 못하는 풍조가 생겨났으며 결혼에는 상대의 신분적 조건을 엄격히 따지는 정실결혼의 풍습이 나타났다. 본인의 애정에 대한 정도와 본인의 의사는 무시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혼인의 성공판단은 사랑이 아니라 더 좋은 가문이었다. 더 높은 지위나 신분 그리고 가문과 결혼하는 것은 큰 광영이었다. 이런 가족주의 전통은 아직도 별로 변함없이 뿌리깊게 영향을 주면서 내려온다. 혼인에 성공하면 자신의 가문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고 신분을 높힐수 있다. 그러나 이에 실패하거나 양반이 아닌 제층은 모두에게 실움과 恨의 情으로 남게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분상승의 목적에서 관계맺음의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일기도 하는데, 뿌리깊은 당파싸움도 여기에 연원이 있다. 그리고 관계맺음을 잘하기 위하여 처신과 언행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였다. 기존의 권위, 개개인의 능력이나 자격의 권위로서 나타나 있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 사람의 배후에 잘 드러나지 않는 권위에 맞추어서 처신을 해야하니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오직 이것을 잘하고 못함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소위 풀앗이 관계를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니다. 양반이 상민과 호혜적 관계를 맺으면 양반이 손실을 보게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모두가 멀리하는 사람과 호혜적인 풀앗이 관계를 맺으면 기존에 자기와 그 관계가 맺어있던 상대로부

(33) 우리나라 가족주의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愛보다 아래에서 위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孝를 중시한다. 이것은 부자관계가 애정관계 이전에 권력관계 흐름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孝가 근대와 과정에서 쉽게 변질되는 이유가 된다.

(34) 가족중심주의 전통이 민주화 산업화 과정과 충돌할 것인지 조화할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도 의미있는 과제라고 생각된다. 김진권지음, "공업화 과정의 사회에 있어서의 전통과 합리성", 「비판과 변동의 사회학」 한울, 1983. 참조.

터 섬섬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관계맺음이 특별히 이데올로기가 있어 자신의 세력향상에 도움이 될리는 이러한 일반적 경향에 예외가 있을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교를 받아들인과 동시에 구성되는 정치사회체제는 매우 특이한 점이 있다. 중국의 철자를 중국의 철자를 중심으로 관계맺음이 시작된다. 철자는 유교 이념의 중심이며 덕치주의 원리의 상징이 된다 조선의 왕은 철자로 부터의 명분과 인정을 구하리는 관계를 유지코자 한다. 스스로 독자적인 권력수단을 추구하기 보다는 관직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향상시키려고 한다. 신하들은 유교의 명분에 근거하여 중국 세력과 관계를 고려하지 않던을 견제하거나 호혜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양반계층의 집단인 지방의 향반(鄕班)들의 관직과의 관계도 직렬(直列) 관계는 아니다. 향반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으며 왕상 중앙에의 진출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며 또한 실제 중앙의 신하들과 비공식적 관계를 맺고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관직에는 없다고 하나 과실계급으로서 지방수령들과 거의 대등한 서로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대나라던 이들은 잠재적인 판도로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밖에 지방수령은 달행어사 등으로 통계를 맡기도 한다. 이렇듯 지방관리들은 향반을 무시할 수 없고 상호 도와가며 사는 것이다. 따라서 향리(鄕吏)가 도취할하는 것도 눈감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일단 신분구조에 의하여 탈락된 구상이 된다는 것은 아무런 하소연 할 권이 없이 관타 아닌 자로 부터도 착취 당하는 역운함이 있는 것이다. 향리들은 토백의 주범이 되며 또한 향장 상무와의 관계나 정읍관을 모욕하게 때문에 지방의 말인과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치 및 사회구조는 병렬(並列)관계로 나누어지며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상호 이종구조의 견제체력의 형식으로 병으로서 중앙집권적인 사회구조를 갖고 있지만 강력한 왕권을 받들 수 있는 것이다.⁽³⁵⁾ 지방수령이 무득이 장리에 의존하는 것은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즉 정상적인 단위의 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향리가 하는 일은 세금을 거두고 민사결판 사건의 경우를 담당하고 제포구급하기도 하였다. 향리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보수도 받지 아니함으로써 음성적인 수입에 의존했다. 실상 수령도 보수는 명목적인 뿐이었고 역시 음성적인 수입에 의존했다. 이러한 수입을 얻는 방식은 지방정부의 부패방지를 할수하게 하였으며 이것이 자신들의 직위안락과 관련된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일과 연결될 때 더욱 극심했으며 이때 아전(衙前)이 착취의 중간역할자로서 활용되었다. 지주 관리들은 농간을 부리고 세금을 포탈하고 반면에 농민들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밖에도 삼정(三政)의 문란을 보던 알 수 있다. 농민들의 생활은 피폐했고 극한의 억압과 착취를 일삼는 관료나 아전에 대한 반감은 당연한 귀결이며 이것이 극심한恨의 감정을 유발케 된다고 보고다.⁽³⁶⁾ 농민에 대한 부정부패는 너무나 깊어 소수의 개혁의지로서는 개혁이 어려울 정도로 병폐가 심하고 문제가 심각하였다. 이러한 부분적 개혁도 성공하지 못함이 그 증거라고 하겠다.⁽³⁷⁾ 그밖에 기업활동도 대부분 정부가 독점하였고 사기업은 관청의 하청수준에 머무르게 하였다. 지방정부는 공예, 하진 및 관판수송, 소금생산, 인삼재배, 대장간 등을 독점하였다. 그리고 사기업은 정부로부터 허가와 자격이 필요 하였으며 또한 무거운 의무를 짊어졌다. 경제적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한 정부의 기능으로 생각하였으며 정부수입 및 기술 및 설비관리를 위한 행정규제였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이나 장업의 위육을 저하시키는 경제적 질계의 주된 이유였다. 이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조선이나 중국과는 달리 상인들이 큰 재산을 모았는데 이더 봉건시대로부터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작은 형태가 시작되었던 것이다.⁽³⁸⁾ 의국무역이 일일 시작되었고 이는 또한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동인이 되었으며 한국과 비교한 때 행정력의 통제가 적었던 이유

(35) 포대정교수(鄆池大)의 주장에 의하면 가혹주의 전통은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고 또한 양반 신분이체제를 일차적으로 깨뜨릴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것은 유교전통과 함께 조선사회를 이해하는 관건이라고 본다. 조선사회는 이러한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왕권의 교체나 변화가 있더라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다. 즉 가혹주의에 의한 세로조직인 그대로 움직이고 보존해 주고 있는 것이다.

(36) 이조서려 실록구조의 개편은 지남한 일이있기 때문에 민속들이나 구속 신앙에 호소하므로 한은 끌리는 종교의 영향을 갖게도 하였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공학관, 흥경매관, 진주민란은 양반들의 억압지배층을 다도하기 위한 반봉건적 단원이었다. 그리고 통학은 유교에 대한 대항적 성격을 지녔다. 신용하말,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한국사회의 어둠로 가고 있다」, 알책) p.246.

(37) 공학혁명도 결국 실패로 끝났다. 한유근, 「공학농민봉기」, 세종문화기념사업회, 1976.

(38)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는 자본축적, 즉, 내재적 발전분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 장덕일 「조선후기상업자본의 발달」, 고려출판부, 1973.의 책을 참고할 것. 일본의 사학자들 중에서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와 지대계급인 사무라이들의 극기, 물욕금물, 명예심준중 때문에 상인이나 지주들을 착취하는 것을 삼갔던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조선시골공동사회는 상인이 적었고 또한 지방행정의 통제를 받았다. 양반계층은 지주이며 지방귀족이었는데 수령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노동, 군부등을 면제받고 지위유지, 이익유지등 특권제급을 꾀하였다. 양반계층은 특권계층으로서 관직을 차지하였고(관직은 토지 등 이권과 합치했다) 또한 이들은 자자손손 관리시험⁽³⁸⁾을 패스하여 계승되며 토지를 소유하였다. 그리고 관직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중국고전이나 유교경전을 가르치는 비생산적인 직업에 참여하였다. 젊은이들은 무지질소한 경전암기에 몰두하였다. 농업이나 수공업에 손대지 않고, 중국문화나 학습에 전념하는 것이 존경과 신관차별의 표징이 되었다. 지방의 향청조직은 지역공동사회를 대표하는 지원조직으로서 지방행정의 통치과정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다. 우두머리는 지방유지에 의하여 천거되고 지방수령에 의하여 지명되었다. 비공식적인 정부조직의 의미를 지니며 수령에서 조인을 주고 명령시행을 도와주었다. 이러한 향청조직과 지방관리의 결탁은 민중에게 부패와 착취를 더욱 심화시켰다. 향청은 행정력을 견제하며 민장을 선발하는데 향청장인 피수의 영향이 있다. 중국제도인 오가작통법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채택되어 평화유지, 세금납부의 보장단위로서 활용되었다. 한 마을은 협동적인 생활조직으로서 혈연, 지연, 경제적 상호의존적 응집력이 컸다. 필자는 여기에서도 품앗이의 전통이 나타난다고 본다. 이들은 마을단위로 개간한 공동의 토지장터를 소유코자 하였고 이를 번장으로 추진하여 관리시켰다. 그리고 신용자금단위로서 재(契)를 조직하였으며 이것은 서로 우의를 증진시키며 이것은 공동생활기반이 되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끼리 협동심을 증진시키며 은집성강화, 공동생활의 재정적인 자구책 그리고 이것은 가축, 인삼재배 등 유사한 직업으로 발달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속적인 자율적인 정부를 향한 대중의 움직임과 공동생활의 개발을 위한 자구책은 경제발전이 전제한 결과를 낳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혜적 노력은 문화전통으로서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듯이 관서남용과 호혜적인 행동양식은 비단 정치행위에서나 상위계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서민들의 자구책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김주희 교수는 품앗이 情의 이데올로기를 하느님 크세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논분⁽⁴⁰⁾을 발표하였다. 한국농촌 인간관계의 전통적인 기본유형은 품앗이라고 가정하고 약 8개월째 걸쳐 경북부근에 있는 K마을을 현지조사하면서 연구한 결과인 것이데 이 조그만 농촌을 단위로 비롯된 가설을 한국전체의 공동 인간관계 유형에 적용할 수 있을까하는 주정을 직간을 동원하여 시도해 본 것이다. 그는 품앗이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하여 수(Hsu)의 인간관계 분석모델을 채택하였는데 수는 인간관계는 역할(role)과 정(affect)의 두 측면에서 나누어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함을 인용하여 품앗이를 역할, 즉 사회적 의무로서의 품앗이와 정서 및 감정이 깊이 개입된 관계로서의 품앗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품앗이는 서로 호혜적인 역할의 교환에 의하여 따르는 교환의 정이라고 볼 것이다. 여기서 교환이란 일본에서와 같이 절대적 전인간적인 교환⁽⁴¹⁾이나 서구에서의 가치불교환과 구분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여기에서의 경우는 단순히 상징적 심리적 교환이라고 볼 것이다.⁽⁴²⁾ 품앗이는 호혜적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주고받는 행위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어느 두사람이 품앗이의 관계에 있다면 두사람 사이에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있음이며 어떤 사회적 망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품앗이의 관계가 항상 두사람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소위 단계행위와는 다른 차이가 있다. 여기서 사례로 한 K마을의 경우 다수 주민의 참여를 요구하는 많은 행사가 있는데 그들은 그 행사가 지니고 있는 목적을 위한 집합적 행위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사의 주최자역의 개인적인 품앗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단계의 성격은 행사의 명분이 희박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최자의 품앗이 관계의 기능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들면, 굶주림을 마을 원 주민들이 오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 굶을 여는 집안에 따라 모여든 사람의 숫자에 큰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작가갓에 한 번도 따주지 않은 사람의 갓에는 가지를 얹기 때문이다. 따라

(39) 상인에게도 개방되었으나, 거의 양반들이 차지하였다.

(40) 김주희, 앞책, 앞말.

(41) 오야봉-교양의 관계, 장인정신의 성격이다.

(42) 상징적 교환이론을 참조. Turner,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Illinois, The Dorsey Press, 1978, pp.69-92, pp.201-305.

서 이런 품앗이에 의한 성과는 개별적 호혜적 충성에 의한 것이며 집단적 충성이 아닌 것이다.⁽⁴³⁾ 그밖에 성인들의 노동의 교환도 그렇다. 인간관계의 축대로서의 품앗이는 인심이라는 것과 연관성을 갖으며 지속적인 품앗이는 인심을 좋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심을 잃어 유사시 무관심과 냉담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부적 반응은 대단한 위력이 있다. 품앗이를 이행하게 됨은 역할적인 의무를 행함이 되고, 또한 정을 함께 주게 된다. 반면에 불이행은 사회의 비난을 당하고 섭섭한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정과 품앗이의 관계는 가는정 오는정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결코 일방적이 아니며 호혜적, 쌍방적, 상대적인 것이다. 情관계는 품앗이를 행함으로써 시작되며 사회적으로 규정된 인간관계 종류를 넘어선다. 말만 갖고서는 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품앗이를 행하는 것이다. 품앗이는 행함에 고마움의 감정은 정의관계를 유지하려는 진지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주고받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받은 쪽이 금방 무엇으로 갚으려고 노력한다든가 고맙다는 표시를 당장 나타내는 것은 실례(失禮)가 되는 결과가 많다. 장기적으로 타산적인 情의 교환의 성격을 갖는다. 품앗이의 기대가 계속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되며 정관계가 끊어짐이 우려되어 비리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을 돌려준다는 것이 주된 대화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섭섭함을 극복함으로써 품앗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정서의 문화의 특징을 갖고있고 그 내용은 恨의 情과 품앗이 情으로 이루어짐은 역사적인 과정에서 유도하여 보았다. 억압적 신분구조로부터 연유되는 恨의 정은 행위의 목적적인 정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부상조적인 호혜적 관계문 맺는 방식인 품앗이 정은 행위의 수단적인 情이라고 파악해 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전통으로서 매우 뿌리깊게 남아있고 또한 오늘날의 근대화와 조직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우리민족의 심층구조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Ⅲ. 근대화과정과 조직행동의 양상

한국과 일본은 서로 역사적 조건과 문화전통을 달리한다.⁽⁴⁴⁾ 그리고 선진서구의 문물과 세력에 대처함에 있어서도 그 대응양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역사적인 인과적 조건에 차이가 나타남을 근대화 과정에 관하여 계속 논하여 봄이 의미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륙의 막강한 문화적 영향과 대륙세력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대륙과 관련하여 관계 정립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문물을 선별적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여유가 섬나라인 일본과는 달리 적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끊임없는 자극이 북방에서부터 도전되었기 때문에 자기정립, 흔들리지 않는 이념의 수립이 필요하였고 규범주의적 성격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사대부의 기개와 보수적인 기질을 낳게 하였고 철저한 신분의 안정성을 지향하였다. 즉 외부의 자극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담협정신이 결여된 셈이다. 이에 반하여 일본은 고립된 섬에서 항상 새로운 것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아니된 것이다. 이용주의 정신이 강하고 외부에 대한 관심이 컸고 상황에 따라 신속성 있게 반응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유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조선은 진성한 것으로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데 반하여, 일본은 당시의 무사계급들이 유교의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일 정신적 필연성의 여건도 없었고 적극적으로 되지도 못하였다. 대외세력에 대하여 조선은 명분을 중시하였고 일본은 실제의 힘을 중시하였다고 볼 것이다. 19세기경 물밑듯이 밀려오는 서구문화에 대하여 조선은 통치이념과 권력이 일치되어 있으나 일본은 천황과 막부가 구분된, 즉 통치이념과 실력이 二元的인 구조를 갖기 때문에 서구의 문화의 수용에 진척성이 있었다. 일본은 사회적 조직도 분권적이며 역할분화가 가능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좀더 가능한 여지가 있었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세력에 대처하는데도 문화전통이 유감없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아진다. 당초에 서구의 세력에 대하여 배척하는 입장은 서로 비슷하였다. 서구의 세력을 한국과 일본은 거의 같은 시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다만 일본은 일찍 통상을 시작하여 외세의 압력을 시간적으로 분산시켜 조금씩 받아들임에 반하여 한국은 은둔의 왕국의 위치에서 안주하여

(43) 리더십 유형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44) Seizahuro Sato, "Response to the West"; The Korean and Japanese Patterns, Japan, *A Comparative View* (ed. by A Craig) Princeton U.

접촉이 적다가 갑자기 외세의 충격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초기에는 전반적인 거부, 다음에는 문화를 제외 한 기술이 도입단계, 그리고는 서양의 문화에 대하여 인식을 하는 계몽사상이 등장한 과정을 나타낸다.⁽⁴⁵⁾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서구에 대한 동아시아적 반응’(East Asian Response to the West)이라 불러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서구의 침략진출에 대하여 더욱 민감하였다는 점이 특징 있다.⁽⁴⁶⁾ 오랜세기동안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였던 중국의 세계질서에 대한 서구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아편전쟁은 일본의 사무라이 지식계층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고 이 중국전쟁에 대한 여러 정보나 문헌은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열던 논쟁을 하도록 만들었다. 막부는 화란인이나 중국인에게 그 전쟁 당시 영국에서 사용하던 무기와 전략에 대하여 세세히 탐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조선은 매년 중국에 조공사절단을 보내며 중국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정보에 대해서 더욱 가까이 접할수 있었으나 아편 전쟁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이 전쟁이 갖는 잠재적 의미에 둔감했다. 이것은 세계관과 역사의식이 역사발전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하는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⁴⁷⁾ 일본은 신중성을 취하고 민감하게 태도변화를 꾀하였다. 아편전쟁에서 중국의 패전소식을 듣고 막부는 외선격퇴의 명령을 곧 철회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쇄국의 입장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정을 인정한 것이며 서구의 강력한 군사력과 촉발 일보적전에 있는 정면대결을 피하려고 최소한의 양보를 한 셈이었다. 일본은 이 당시 미국과의 통상문제로 의견이 분분할 때인데 황실과 사무라이 애국자들 때문에 망설였으나 중국과 영국사이 아편전쟁이 발발하자 미국과의 통상을 서둘렀다. 이러한 대처방법과는 대조적으로 1860년 서구군대가 중국 북경은 점령하자 조선정부는 놀랐고 사실확인 사절단을 급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발견으로 정부정책은 오히려 서구에 대하여 배타적인 태도와 고립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었다. 조선은 러시아 통상요구를 이미 거절하였고 또한 밀입항한 불란서 카톨릭 신부들을 조선내 카톨릭신부 수천명과 함께 체포하여 처단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불란서 함대 수척이 강화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조선정부는 전력을 다하여 저항하여 철회시켰다. 그리고 미국이 통상요구를 해음에도 완강히 거절함으로써 전투로까지 비화하였다. 불란서나 미국은 준비된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지속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조선정부와 대원군은 이것은 서구세력에 대한 승리로 오만하고 승리감에 들며 쇄국정책의 보수적인 감정은 더욱 강화되었다.⁽⁴⁸⁾ 일본은 서구세력과 충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충돌은 한국과 차이가 있었다. 승리도 패배도 없는 평화조약형식으로 끝났고 국론이 통일 안된 내분이 함께하는 과정에 극단주의자는 결국 태도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쇄국의 입장의 조직운동은 추후에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서구기술을 도입하는 열성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조선이 빨랐다고 할수있고 17세기 초에 이수광이 이미 따태오릿치가 쓴 서구기술을 접하였고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17세기 달엄 서구기술에 대한 관심은 일본에서 급속히 늘어났는데 이는 이국적인 매력과 서구의 위협에 대한 인식때문에 상황적 실리추구의 방식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한국은 대조적으로 서학이 보수적인 유교전통에 압도되었고 더구나 양반들 사이의 당파싸움에 유교전통의 명분이 위정척사(衛正斥邪)의 논리의 형식으로 개입되어 당파싸움은 서학자들을 수차례 단죄하여 처단하였고 이러한 기간동안에 서구기술에 대한 모든 저서들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다시 보충될 희망도 없었다. 그리고 서구에 대하여는 접할 틈이 거의 없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일본에서는 서구기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공개적으로 서구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것은 일본과 통상을 맺음으로 쇄국 정책을 버린 후에야 겨우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서구세력과 진보된 문물을 받아들인데 있어서 양국은 왜 다양한 태도로 나타났는가. 조선의 경우는 명나라와의 강한 일체감 때문에 명나라의 후계자로서의 자

(45) 유길준과 같은 인사. 국권통치권행동, 민족자주, 점진개혁, 문호개방, 교육에 대한 신념등을 주창하였다.

(46) Seigahuro Sato, 압책, 앞말.

(47) 현상학을 상기하면 좋겠다. (역사는 의식의 흐름이다.) 이명호갈(현상과 인식, 79년, 서울출) pp.69-86 참조. 그리고 이것은 어느정도 역사의 분기점이 될 사전일지도 모른다.

(48) 유교주의는 양반계층, 쇄국정책, 수구파와 이어지며 외세의 도전에 격기는 것은 곧 신분구조의 붕괴로 기록권을 상실하고 몰락을 의미하므로 완강히 외세에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은 오히려 외세의 힘을 빌어 반대립적 저항운동을 분쇄하려고 하였다.(그리고, 일제시에는 지주계층, 양반계급이 친일적 성향이 농후했다.) 橫濱廈갈, 앞책, p.247. 참조.

부실때문에서 외국세력의 침입에 대하여 진족성과 실제성을 갖고 대처하는 능력은 상실했던 것이다. 유학자들의 대표적인 조약현은 이런 표현을 했다. 청나라는 야단인, 서구와 서구화된 일본인은 짐승, 야단인하고야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짐승하고야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하였다.⁽⁴⁹⁾ 이세조전의 정치시스템은 관료체제로 수립하였다. 양반계급의 특권은 대단하였는데 처음에는 소수로서 상부를 독점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점점 양반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성분과 계층의 차별화가 생기고 그 가운데서 응집성이 상실되었다. 관직에 있는 것은 온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입의 원천이었고 실직은 온식솔과 함께 몰락의 길이었다. 따라서 권력의 결정체인 최소한 관직을 두고 온가족이 밀고 나서 경쟁은 치열하였으며⁽⁵⁰⁾ 이는 당파싸움으로 치닫게 되는 요인이 된다. 문중끼리는 응집성이 강하였고 당쟁도 문중간 싸움의 형식이었으며 당파거리의 유대성은 뿌리가 깊어 대(代)를 이어 지속된다. 몰락한 가문의 수 많은 사람들이 치닫되고 유배로 가게되었다. 이러한 당파싸움은 당파의 운명을 좌우하는 왕에게 때로는 절대권력을 주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점차 왕도 이 당파싸움에 말려들어 자신도 비극을 면치 못하는 왕과 양신들이 속출하였다. 이는 세력을 짊은 당파가 자기에게 불리한 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항상 삼사(三司)라는 강력한 탄핵기관을 발달시켰다. 이 세력은 왕의 행위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이 기관은 유교의 명분과 전통상의 위반에 대한 비판력을 강화시켰으며 판로들중 이단적인 자는 치단을 받게하였다. 판로들은 혁신적 변화정책을 취하기는 어렵고 수동적인 단일무사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정부의 소극적 보수적인 자기지력에 대한 비관적은 이러한 당파싸움의 결과에 상당히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지주일대였던 양반계급들의 관심은 현존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그룹들과 결속이 되었다. 따라서 아무런 동원이 강한 왕이나 집권자도 사회적 개혁을 시도할 수가 없었다. 당파싸움에 유교적인 명분이 깊이 스며들어 실학이나 개화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어려워져 불만만 내몰들이다. 당파싸움이 결국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세의 반응양식에 진밀히 결정되는 것을 필자는 부각하고 싶다. 집권세력인 유학자(儒學者)들은 나중에 수구파로서 등장하고 몰락양반은 실학파로서 전향하고 나중에 개화파와 연결된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양식의 뿌리에는 자신의 지위향상을 위한 다수의 깔려있다고 보아진다. 결국 유학파 수구파들도 결국은 외세에 의존하여 반대세력을 격파시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상당히 성격이 애매한 동학운동은 반봉건적, 반외세적인 운동이었는데⁽⁵¹⁾ 이것에 대하여 집권층이 청국에 도움을 청하는 형식이 되었으며 수구파가 삼일천하의 김옥균 등 개화파를 칠때에 러시아의 힘을 빌렸던 것이다. 외세의 열강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각축을 벌일때 신분구조가 와해되고 신분구조의 변동이 시작되었으며 양반의 흥패나 족보를 위조 매매하는 사람들이 풍중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떤 의미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강 중에서 좀더 강하게 보이는 열강의 세력을 등에 업고 출세하려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또한 정국은 이러한 세력들로 갈라지게 되었다. 갑자기 근대화 물질이 각지로 열강의 진출과 이들이 각축하는 시기는 당국의 위력이 있는 일이었으나 개별적으로는 자신의 신분층 개선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따라서 양반이든 상민이든 많은 사람이 경쟁적으로 어느 세력에 붙어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기득권을 정당화시키려는 강한 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어떤자는 청국에 붙고 어떤자는 일본에 붙고 어떤자는 러시아, 미국, 영국에 각각 달라붙었다. 오랫동안 신분구조속에 한(恨)을 느끼고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권력을 원망하여 왔지만 한편으로는 좀더 나은 신분을 동경해온 많은 백성들의 강력한 행동양상이었다. 좁은 안목에서 볼 때 모두들 자기신분의 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였고 이에 급급하였다. 50년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일본에 밀착하는 무리들이 속출하였고 나아가 망하고 의병들이 일어났다.

(49) 매우 강력한 주장을 본다. 그러나 이후의 문제는 일제식민지시대에는 화이사상(華夷思想)이 급속히 사라지고 권위 권력이 그만큼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해방후에는 친소사상 친미사상이 극한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빨리 급속변(quick movement)하는 현상을 유의해 불만하다.

(50) 이 전통은 오늘날 한 가족중에 똑똑한 아들하나 출세하면 가문을 흔든다 하려는 생각과 흡사하다.

(51) 아이키니말한 것은 이 운동은 양반계층을 격퇴시키고 다시 왕에게 머리를 조아라는 단서이었다. 왕권을 막도하려는 행동까지 나타내는 못한다. 그리고 유교를 진봉하는 보수적인 양반과 도전하기 위하여는 분호 개방적이어야 안된다. 오히려 이집어주는 기득권을 누리려는 양반계층과 견해를 같이 한 것이다. 따라서, 정의 세력도 원인이지만 운동이 약화된 실패의 단일적 책임이 비껴해 있었다고 본다.

(52) 의병들의 대부분이 갖고 서로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당시 영남 의병장으로 가장 이름이 높았던 김윤식 장군의 경우, 일본군에게 붙들려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람, 자기 친척중(姑從兄弟)에 머리를 도끼로 맞아 벌을 당하였다고 한다.

사불오열 붕괴되고 의병장들이 동족인들에게 의하여 살해되는 것이 다반사였다.⁽⁵²⁾ 이러한 경향은 일제시 대에도 독립운동의 조직적인 무력항쟁 레지스탕스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함의 원인이 된다.⁽⁵³⁾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많은 사람들은 새로이 부상하는 국제세력의 주역인 미국에 밀착하여 자신의 지위와 세력을 향상시켜 보려는 무리의 급증을 경험하게 된다.⁽⁵⁴⁾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남북분단, 해방후 정치적 혼란, 무분별한 외자도입으로 성장과시, 종속적 경제구조의 허세, 급급한 정권유지, 야당발전의 실패,⁽⁵⁵⁾ 노조운동의 실패, 새로운 외국의 대규모 자본의 국내 진출과 자극, 그리고 신식민지 위협 등의 사태와 맥이 어떻게 통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양반계급신분이 흔들리는 과도기에 권력이 있는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고 또한 자기를 정부관직에 밀어준 친족들에게 감사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로부터의 청탁을 배제하지 못하는 유대감의 구속이 있었다. 이것은 자신의 소신껏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품앗이 관계를 맺은 관계인들 사이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특수주의 전통때문에 규범적인 행정은 발달하나 보편성이나 일반성, 종합성, 다원성, 전체성을 지향하는 정치의 발달이 어려웠고 또한 비합리적인 관료체제로 남아있는 이유를 이해해 볼 것이다.⁽⁵⁶⁾ 많은 정치가들의 출세지향적인 성향, 이기적 가족주의, 권파적이며 보편주의적 사고 부족은 정치부재 현상을 낳게하는 것이다.

이씨조선의 정치시스템은 중앙관료제와 양반엘리트의 결합의 형식이었다. 반면에 일본의 도쿠가와 체제는 지방분권적이었다. 도쿠가와시대에 인재를 뽑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였지만은 중국이나 조선처럼 이를위하여 과거제도가 제도화된 적은 없었으며 이미 고착된 가족서열에 의하여 그 자리가 충당된다. 모든 공직제도는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은 서열에 의하여 정해진다. 재능에 의하여 신분이 향상되는 일이 거의 없고 이들의 체제에 불만을 할 때 죽음을 당하곤 했다. 다만 때때로 전시 후에 사무라이들이 숫적으로 늘어나 일시 자리 다름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관료적인 권력투쟁은 조선보다 훨씬 적었고 사무라이들은 큰 범죄를 짓지 않은 이상 벌을 받거나 추방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들의 지위변동과 부정부패는 조선에 비하여 훨씬 적었고 개개인의 상승은 번(藩)과 분리하여 얻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번(藩)은 경제발전에 사무라이가 깊은 관심을 갖게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산업을 경시하는 유교적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도쿠가와 시대에 관개와 토지개간사업이 바쿠후와 번(藩)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들로 부터 지지를 받는 대상인들이 있었다.⁽⁵⁷⁾ 산업과 상업의 영역에서 조선정부의 태도는 부정적이었고 실학파는 역제를 당했다. 이는 유교전통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상업은 조선초기 정시(定市)라는 것이 있었으나 점차 서울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었으며 조선의 경제발전은 관료들의 억압과 수탈때문에 역제되었다. 유학이 조선에서는 양반에게 국한되어 전수되고 일반대중 각계각층에 널리 분포되지 못한 점⁽⁵⁸⁾이 일본과 다르다. 일본이 유학에 있어서 다양한 학파의 등장으로 정통성을 세우지 못한 점이 서구세력에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한 이유가 된것이다. 한반도는 지형적인 요인에 의하여 당파싸움은 중국, 일본 등 열강들의 프락치전쟁의 성격을 띠게되었다. 개화파의 개혁시도는 청조세력을 등에 업은 민씨일파에 의하여 삼일천하의 집권으로 좌절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조선의 개화파는 득세하여 개혁을 할 수 있었고 이는 갑오경장이라고 불려워진다. 개화파는 반대당의 공격을 막기 위하여 일본군의 도움을 청하였고 일본의 음모가는 민비를 살해하고 단발령, 신법령반포등 개혁조치를 단행하였고 이로써 반정부, 반일폭동이 일어나자, 개화파도 휘청거렸는데 이는 보수파 뒤에도 러시아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메이지유신과 같은 개혁과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서구세력의 심각한 개입은 없었다고 한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여 볼 때 조선은 중국과 매우 밀착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일정거리로 두고 독자적 자율적으

(53) 일제시대에 이러한 레지스탕스가 성공했다라면 신탁통치, 남북분단이 되지않고 정권인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

(54) 우리나라가 해외지향성, 해바라기성 문화라는 항간의 야유를 깊이 반성해 볼 일이다. 단순한 문물을 배우려는 그 이상의 사대주의적 권력지향성을 두고 하는 말이라 해석된다.

(55) 한국의 이러한 정치의 실행을 외국인이 개탄한 말이 있다. Gregory Ha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8), pp.1-35.

(56) 백환기달, "정치냐, 행정이야?"(『신동아』, 1982 10월호.)

(57) G.B. 산썸 「日本文学史」東京創元社, 1976, pp.386~392.

(58) 우리나라의 유학은 결과적으로 다분히 특권제국을 위한 종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본래의 내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로 타영향에 반응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과 조선시대의 양반계급은 왕과 문중과 깊은 관계를 맺고 보수성을 지녔는데 반하여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왕도 문중과도 관련되지 않고 번(藩)이라는 중간권위로부터 지위를 보장받았다. 따라서 이들은 번(藩)에 대하여 책임은 느끼고 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토쿠가와 정치조직은 보다 더 이념적으로 다원적 정치조직을 갖게 됐다. 신축성(flexibility)이 높았으며 조직과 이념사이의 자율성(autonomy)이 부여되었다. 정치적 무능한 황제에 대한 중심적 상징체제와 막부의 정치적 유능한 세력과 연결되지 못한 문화와 정치조직의 이중성은 특징적이다(충효사상에 의하여 왕권에 윤리적 상징이 집중되는 한국사회와 다른 특징이었다).⁽⁵⁹⁾ 따라서 전통질서를 뿌리채 뽑지도 않고도 서구의 충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외국문화에 관대할 수 있었다. 이 요인들은 국제환경에 무리없는 적응을 가능케 했다. 이는 중앙의 신념체제의 변질을 격지 않으면서 특수주의적 다원사회로의 문화적 수용이 가능하였다. 지방문화의 특색이 다양하며 일본이 이해는 어느 한지방만의 이해로는 곤란하다고 한다. 한국의 서울이 전국의 축소판처럼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 다르다.

이상과 같이 역사적으로 근대화과정에서 우리의 문화와 민족성이 한의 정과 품앗이 정의 결합양식으로 나타남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화 과정에 여러가지 단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또한 중요한 원동력과 잠재성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적용적 권력지향, 출세주의, 가족주의, 미합리적 관료주의, 역할이동경향, 개별 충성의 양식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 당파싸움과 색국정책 외세결탁도 이러한 심층구조에서 이해해 본 셈이며, 상대적 장기적 타산적 情의 교환관계의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양식의 작용함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앞으로 좀더 미시적인 현행 조직행동 양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일본은 공동체원리로서 신뢰관계가 요구되었고 오야붕-고붕의 관계, 절대적 일방적 전인격적 관계가 요구되는 사회였다. 이는 집단충성의 양식이며 배신을 거부하는 신뢰문화의 양상이었다. 일본에서는 요즘 대학에서 졸업후 기업체에 들어가는 사원은 기업체의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게되고 이러한 관계는 일단 평생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개인자신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를 벗어나려고 잘 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떠한 일로 조직을 배신하여 탈락될 경우 그는 일본 사회에서는 어디저나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된다. 즉 일본사회에서는 설명이 없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⁶⁰⁾ 일본의 노동시장은 이러한 원초적인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종(從)적인 노동과 교환 그 이상이 되지 못하는 횡(橫)적노동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진다.⁽⁶¹⁾ 노사관계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는 신뢰관계로 의리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투쟁이나 대립의식이 적다. 하급자에게는 무조건적 충성이 요구되며 상사에게는 의리에 입각한 윤리규준이 있다. 의리관계로서 극한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해고라는 것은 없다. 해고는 종업원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되어 다른 종업원의 충성심에도 영향을 주므로 감히 하지 않는다. 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 어떤 고마운 정을 느껴서 어떤 충성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집단의식인 것이다. 무능력자는 한직에 두거나 재교육을 시키며 또한 사원들은 상사와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지위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러한 종신고용의 제도는 무언의 약속이며 안정고용 동질의식을 낳게 한다. 불경기 때에는 기업주에게 불리하나 호경기때 종업원이 스카우트되어 다른곳으로 가는 일 없이 또는 노동조건이 나쁘더라도 불만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⁶²⁾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불량률도 적다. 일본의 노사관계는 일반적으로 가장 취약성이 많고 어용노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별 노조의 형식은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문제는 없고 노사협조가 잘 되고 있다. 조직의 경영과정에도 각종 고정처리(苦情處理)도 일본에서는 미공식적으로 처리되며 그리고 직무명세서, 직무분담, 책임권한관계 규정이 거의없다. 구성원의 멤버쉽이 오히려 크게 강조된다. 이것은 탈관료적(脫官僚的) 성격⁽⁶³⁾을 나타내는 것이다. 서구의 합리적 관료주의, 한국의 미합리적 관료주의의 성향과 비교될 만하다.

(59) Eisenstadt, 앞글, 민족별로 근대화 과정의 특징을 비교분석한 내용을 참조할 것.

(60) 李慶珩, 「동경동진」, 汎濶出版社, 1984, pp.21-24. 이것이 민주사회의 방향과 어떤관계에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만하다.

(61) 최종태, 앞책, 앞글.

(62) E.O. 라이샤워 著, 「日本史」, (鄭秉學 譯), 探求堂, 1976, pp.226-286. 서구는 능력주의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쟁원리와 공동체원리가 혼합되었다. 기업가는 호경기때는 공동체원리를 주장하고 불경기때는 경쟁원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종업원의 주장은 이와 반대이다.

(63) W. Brown, 앞글, 참조.

한국, 일본, 서구(미국)의 경영철학을 각나라의 문화전통에 입각하여 살펴봄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정서의 문화, 일본의 신의의 문화, 서구의 이성의 문화가 행동에 나타나고 검증되고 있는 경영관리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⁶⁴⁾ 한국은 단기경영목표, 단기고용제, 급속한 승진평가제, 경력체제의 비체제화, 현재적(顯在的)통제, 개인소수에 의한 의사결정, 개별책임, 소수의식, 등이다. 일본의 경우는 장기경영목표, 성장위주전략, 중신고용제, 매우 완만한 승진평가제, 포괄적인 업무파악 및 비전문성의 경력계획제도, 통제기구의 내재성, 공동의사결정, 집단책임, 집단주의 의식구조 등이다. 이에 반하여 서구(미국)은 단기경영목표, 수익성위주, 단기고용제, 급속한 능력평가 및 승진제도, 업무능력의 전문화 및 특수성의 경력제도, 통제기구의 현재성, 개인의사결정, 개인책임제, 개인주의 의식구조 등이다. 한국, 일본, 미국의 경영풍토 및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서구(미국)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혼합형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책적인 수준 비교만으로는 우리의 특징은 알 수 없으며 역사적 분석의 틀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풍토를 보면 기업의 권위에 종업원이 쉽게 통합된다. 이것은 종업원이 기업의 권위에 적응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보수적인 권위에 의지하여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뚜렷한 것이다. 종업원들은 자신이 강등되거나 지위에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 하는 경향을 갖는다. 역사적인 신분구조의 恨맺힘이다. 지위의 향상, 자신의 권력의 향상에 대하여는 강박관념에 가까운 중세를 갖고 있다고 보아진다.⁽⁶⁵⁾ 이러한 지위와 권력에 대한 집착은 상호비교의식을 크게 하게 되며 이는 과거에 상대적 박탈감의식과도 관련된다.⁽⁶⁶⁾ 그리고 쉽게 계급이 형성된다. 기업의 존립목적이 사회에서의 부분조직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유평피아 형성에 기여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公擧로서의 의식이 낮고 기업주의 권력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수단이라는 의식이 강하다. 종업원들도 자신들의 기업생활은 자신들의 지위나 세력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술자 같은 전문가의 행동양상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하는데 이것은 산업구조의 경직성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문제가 크다고 볼 것이다. 기술자들은 기술자의 역할에 계속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술자는 세력이 약하다는 사회적 인식때문이다. 일반 인문사회계 출신들이 관리자로서 승격하여 지위를 높이는 것은 관리자의 길과 자기들의 분야와 어느정도 연관이 있으니까 상당히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기술자가 기계와 더불어서 또는 실험실에서 연구를 계속해야 할 사람이 사무직에 가까운 관리직의 자리로 옮겨가서 경영자나 관리자로 자기의 역할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즉 권력지향의 방향으로 역할이동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기술자가 기술자로서 그대로 남아있기에는 출세와 지위, 권력에 대한 압력과 집착이 너무 큰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유능하고 귀중한 인재를 대우하는 방식도 이에 부응하여 지위를 높여주는 방식, 소위 '長' 자리를 마련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자주 많은 비용과 회생을 통하여 모처럼 배워온 외국기술과 고급 두뇌들을 결국은 그의 전문기술을 살리지 못하는 관리자도 만들어서 썩히는 수가 많은 것이다. 기술자 자신도 자기가 전업으로 하고 있는 기술자체의 발전보다는 좀더 파워워(power)를 행사하기를 원하고 이것에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기의 기술이란 평생을 추구할 가치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세력을 얻기 위와 일시적인 방편, 또는 수단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기술자 당사자 자신이 불만인 것이다. 회사는 고급기술의 필요성때문에 기술자를 지위향상이라는 방식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를 당장 유치할 수없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자를 관리자로 대우하면 기술자 자신도 회사도 더이상 기술활동의 효과를 크게 보기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에 적능제도, 적능급의 방식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각성을 띠는 것은 관리직이란 또다른 차원에서 인간 및 조직이해를 위한 전문적인 인식과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경영관리분야에 전혀 문외한인 기술자에게 관리직이 겸

(64) 西江 Harvard Bussiness. (1983년 장간호) pp.149-158. Ouchi의 Z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체계를 참조.

(65) 직장인들의 이러한 강박관념은 때때로 병적으로 나타난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유흥업이 잘되는 것은 한풀이와 관련된다고 본다. 그리고 유흥장소에서 여종업원들을 흔히 방자하게 대함으로써 억눌린 열등의식을 해소하거나 세디스트적인 우월감을 맛보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 보려는 심리도 이와 연관하여 풀이해 볼 수 있다고 본다.

(66) 이는 자살에 대한 취약성의 현상으로도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의 자살에 대해서는 W.C.Hammer & F.L.Schmidt, *Contemporary Problems in Personnel; on the Executive Suicide*, Illinois, St. Clair Press, 1977, pp.491-495.

당당하여 풀속관리, 또는 미합리적 경영, 또는 산업구조의 경직화, 비토주화, 불공평을 초래하는 심대한 약형향을 띠치고 있는 것이다. 경영에 문의한인 이들은 인간의 심리, 조직, 사회현상들 인식에 익숙하지 못하고 관리를 하는 방식이 대체로 본능에 충실한 상벌체계 즉 일차원적인 기계적인 조직관 관리방식인 것이다. 이들은 자기의 경쟁되는 세력이나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는 가차없이 징계하며 해고를 쉽게하는 자이다. 이들은 책임권가에 약삭빠르며 대체로 강자에게는 맹종하며 약자에게는 수순으로 단립하는 권위주의적 성격이나 관리스타일을 취하여 공포의 관리자로 군림하는 것이다.⁽⁶⁷⁾ 이들은 거시적인 역사의식과 사회를 보는 눈을 갖지 못하여 조류불평등분배의 실용이 될수 없으며, 기업가의 크나름도저 충실한 황견(yellow dog)-역할을 맡아 걸전한 노조운동을 실패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기계공학적인 사고에 깊이 몰두하여 있으며 인간적인 측면을 도외시하며 여기에서 환발하도록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의 사고의 틀속에서 관료화, 미합리성과 핏값을 속삭하는 것이다.⁽⁶⁸⁾ 그리고 이들의 관리차지때문에 정직 유능한 전문관리자들이 경솔하게 몰락되고 폐쇄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에 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하여 기업가는 기술직에, 경영직은 경영직에서 자신들의 지식과 능력을 계속 개발하며 리더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사회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리더직형적 역할이들의 수는 기술자에게만 찾을 것이 아니다. 교수, 의사, 목사, 군인, 경찰, 변호사, 출판업 등 등등의 직업권이 중립 정개로 나가는 기업중도 이익의 이익을 관리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어려울 것은 아니며, 필적이 너무나 많은 중립의 일동 때문이다.

기존의 권위에 의지하여 관례처럼 각 지위관리는 과거의 도덕을 따른 하위권위나를 지어 책임을 지는 원칙으로 나타나는 수가 있다. 계계관리의 다분이나 부사관의 다분이나 비관직의 일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는 결코 최고권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지는 연결될 수 없는 정직의 경쟁적인 작용 때문이다. 옛날의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박해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중기부터 일한 당의적용을 일어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조로 왕권의 지위를 받음으로서 작신들의 지위의 권위를 향상시키려는 정면들이었으며, 권 학회법은 비록 비문권력 정직을 지닌다고는 하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관적책일 거부하는 때까지 나가지 못하고 새로운 원칙의 적용권 일장을 주장한 느낌이 된다. 동학혁명은 양반 계급의 개혁을 꾀고 일한의 비모하에서 새로운 정직의 권면적용으로서 작신들의 지위, 농민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보려는 세용이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항상 세용을 하고는 왕에게 목을 내놓고 정원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단 정치권이든 기업에서이든, 지도자나 지도대체가 흔들리며 타도된 가능성이 있다고 확실히 판단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한때가 어떤 유약함이나 약점을 보이면 아귀처럼 달려들어 박살이 날지도 모른다. 세력이 나타나는 세력은 기존의 권력을 아주 완전히 패퇴시켜서 정권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파일로 원적라 갈아 문개어 버리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권위자들과 호혜적인 줄타이를 맺지 않았던 사람이며 침침한을 받아왔던 사람들이다. 경영층이나 기업가를 무참히 패배시킨지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달리를 위해서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견제할 때는 승승장구하나 한번 망한 기업들은 온갖 죄를 뒤집어쓰며 해가망신하지 않고 물리나는 일이 거의 없다. 주식회사의 경우도 회사의 재원과 자기의 재산을 구분짓질 수 없다. 회사가 망하면 회사가 망한 책임이 무한정으로 자기에게 다가선다. 이것은 법적 책임이상과 권력적이며 침리구조적인 박해를 받는 것이다. 옛날의 잘못된 사소한 것도 온갖 죄의 이름으로 운동 뒤집어쓰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 현사업권 되며 이 기회에 그의 부하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직권을 침범당하며 또한 단립히 박탄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어디까지가 책임이 있고 어디까지가 책임이 없느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따지기가 매우 어렵다. 노사사건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의 예이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자급자족으로서 기업의 자신은 평소예 병의를 은닉하여 때때로 보유하는 것이 매우 일반화되었고, 자기의 권리는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감추어 두는 수

(67) 이들은 기업에 매우 해독을 줄에도 불구하고 정권집에 다니다가다. 이들은 어떤 어떤 경우는 부하가 수속처럼 일하게 주는 경우에 패배를 느끼는 새미스트적인 원리에도 손이 있을 수 있다. 일관을 구한다는 사고이며 모두 책임권위라고 유미니스트한 경영중도 조성을 향하는 역사적 흐름에 병행하는 것이다.

(68) 물론, 기술자중간에 별도로 인문사회과학의 인식을 스스로 비등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어기의 논의에나 지피로한 당면하다. 반면에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도무지 경쟁력 지도에 떠난도 있는 사람들은 역시 이의해 해당될 것이다.

밖에 없음을 인식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영영 재생의 길을 걸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의해 볼 것을 이러한 기업의 현상과 장래의 위기에 대하여 기업가들은 주의사람들의 행동에 관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잘 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사람이 지금 나에게 급진거리는 것은 사실일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니라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즉 권위에 적응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몸을 도사리며 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듯이 알고있다. 그러나 수가 틀리던 언제 자기에게 과감히 공격하며 달려들지 모르며 자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그로부터 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대체로 알고있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이러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다. 기업의 재산을 빼돌려 두는 것이다. 형제의 이름, 부모의 이름, 친척, 친구, 동창들의 명의로 재산을 몰래 잠무어 두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평소예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하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노력하지만 또한 가끔씩 풀앗이 관계를 확대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타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미리 노력해 두는 것이다. 기업가는 주위의 사람들과 호혜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이러한 위기에서 치명적이다. 위험할 것으로 보고 자기계산을 따로해 두는 기업가들의 심리는 기업의 합리적 발전에 중요한 장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계산(회계)는 그의 개인적인 영리계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의 발전이 개인적인 영리나 발전에 직결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업의 투자는 의미가 없다. 기업자체의 영리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 기업활동은 그의 전체적인 영리활동의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언제든지 개인이익이 필요하다면 기업의 문을 닫을 수 있는 심리이다. 기업이 기업의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계속기업으로서 존립할 이유가 있다는 인식은 잘 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투구하는 노력이 최박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노력을 할만한 가치있는 지상목표가 아니다. 자기목표를 위한 권력증식의 종속적인 수단,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 순수한 집단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기업을 인간관계의 결정체로서 그 자체에 높은 의미와 지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과도 다르며 서구에서처럼 소명의식도 갖지 못한다. 서구는 기업에의 정당한 자기의 권리에 대한 몫을 항상 합리적으로 언제든지 찾는 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기의 몫을 남의 눈을 피해 구태여 미리 은닉시킬 필요가 적으며, 기업발전이 자기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발전이 자기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희박하며 이 양자가 잘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리 기업가들의 사고방식과는 다소 다른 특징인 듯하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업성을 따지는 경우도 극히 단기적인 안목이며 자주 한탕주의가 가능한 투기성이 강한 사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크다. 즉 불안한 여건속에서 속전속결의 성과를 보고자하는 성향임을 나타낸다.

이와같이 분명 기업의 발전이 자기의 발전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우리 기업가들의 사고방식을 특징 있는 것으로 유의해 봄직한 일이다. 이는 물론 종업원들에게도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기업이란 기업가이든 종업원이든 자기자신과 밀착된 느낌을 갖게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어떤 가치물이 생성되고 이것은 분배받기 위한 곳이나 수단이라는 생각 이상의 좀더 높은 철직사상이라든가 또는 자신의 생애의 상당한 몫을 차지하는 전인격적 인간관계의 근본으로써 의미있는 목적적인 곳으로 보아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의 풍토는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극히 단기적인 안목이 팽배하여 있다. 당장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방법과 투자방안에 관심이 있으며 설사 중요한 부문이며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익계산이 모호하거나 극히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경우는 주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교육이나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에 극히 인색하고 있다는 결과도 여기에 연유된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렇게 문화적 역사적인 것에서 이유를 찾는 방법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상황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거의 전시장태를 방불케하는 전쟁의 위협속에 있다는 것과 전변을 여러차례 경험하였다는 사실 등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인 요인도 여기에 첨가하여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적응적 권위주의적인 조직구성원의 성격과 또한 경영층이나 기업가가 약체임을 드러낼때 이들이 여지없이 대내외적으로 당하게 될 수도와 위협의 인식,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되는 객관적 긍정성이 상실되어 있는 기업전반의 풍토, 이것들을 오히려 좀더 중시하여 지적해 보고 싶은 것이다. 기업의 조직구성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몸을

도사리며 부단히 기존의 권위에 의존하여 자신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권위가 뚜렷하면 매우 통합이 잘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에 도전하는 노조의 운동이 다소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부분 실패한다. 노동자들 사이의 개인주의적인 적응경쟁은 단결력을 낳지 못하며 노조운동시에 배반자를 속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 노조가 정부의 어떠한 강력한 억압시책 때문에 육성이 안되었다고도 부분적 이유를 볼 수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기업의 풍토와 조직구성원들의 개별적응적 권위주의 심리구조에 의거하는 것이다.⁽⁶⁹⁾ 왜 정부로 하여금 노조가 육성되도록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수시로 끈질기게 개선될 점을 요구하며 점진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하는가, 경영자 기업이 그리고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여도 노동자들이 조금씩만 협력해도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있음과 또한 그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앞의 권리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전체적 집합적인 단결력을 훼손시킴으로써 모두의 정당한 전반적인 권리나 이익이 향상되는 성숙한 노동운동을 전개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개별적, 경쟁적 적응주의에 의한 배신자 속출현상 때문이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어떤 유사사가 발생하여 기업이 경영층의 권위가 흔들리거나 약점이 노출되고 정부의 비호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은 삼시간에 단결되어 배로는 폭도로 변하면서 권위를 강그리 타도해 버리거나 것뺏아 버리는 것이다. 반면에 질서를 잡기 위하여 일벌백제로 어느 한사람을 확실히 성공적으로 벌주면 나머지는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버린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험이 따르고 실패하면 그는 완전히 타도되고 보복을 당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배반자와 희생자의 구분이 생긴다. 이러한 전략은 비단 기업의 풍토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정치현상에서도 볼 수 있다. 평소에는 야당도 지리멸렬하여 내분이 일어나고 도무지 단결하여 여당의 정치질서에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여당권의 세력이 어떤 내적외적 요인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약점을 노출하면서 단결력은 폭발적이며 공격성이 매우 극렬하며 또한 국민들로부터도 전반적인 등조를 얻어내는 것이 쉽게 기대된다. 오늘날 우리나라 전국이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불가능해 온 것도 이러한 전통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권력을 놓는 것은 멸망의 길이었다. 약자들이 부상하여 타도하면 모든것이 박탈되고 그를 살려두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⁷⁰⁾ 그리고 여러 군중 행동의 양상도 기업이든 정치영역이든 권위 아래서의 움직임은 볼 때 그 강도의 점진적인 중간수준 정도가 없고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를 취하는 것이다. 타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모두 극력 단결이 되든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뿔뿔히 흩어지든지 두 경우 뿐인 것이다. 이러한 풍토는 다수의 횡포가 일어나기 쉽고 소수는 위협을 받고 설방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으로만 볼 수가 없었다. 또한 그럴 여유를 갖질 수가 없었다. 어떡하든지 자신의 세력이 있음을 과시하고 자신의 약점을 급급히 은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일단은 큰 소리를 쳐놓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역할조정⁽⁷¹⁾을 할방정 우선 경쟁적인 두 사람이 만나면 끝없이 서로 큰소리를 치며 나아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한 쪽이 역부족을 인식하면 한쪽이 죽어들며 또한 약자는 이때부터 강자에게 적극적으로 빌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즉시 엄격한 상하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때 하위자의 수모는 대단하며 오직 강자가 배후는 은혜에 의존하여 목숨을 구하거나 벌을 최소화시키거나 최소한의 위치와 면목을 찾으려 할 뿐이다. 그리고, 강자는 약자를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얽어 놓는다.⁽⁷²⁾ 아주 차별화시키고 보복시킨다. 이러 한 행동양식을 자주 보게되는 것은 이 사회에 경쟁적 적응주의, 적응적 권위주의 성격 때문이다. 우선은 자신의 위협은 최선을 다하여 방어해보고자 하는 노력인 것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상대편에게 당하는 수모가 너무나 치명적이므로 자신에게 있는 것을 과장해서라도 방어해 보고자 하는 심리인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방대하고 두리하게 제멸화하여 사업을 벌여놓는다는가, 기업가, 경영층이 저택을 호화롭게 하며 외계의 고급가구를 들여다 화려하게 집안을 꾸민다는가 최고급 자가용을 구입하여 몰고 다닌다는가 하는 시도는 단

(69) 한나라의 정치현상은 몇몇 정치가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의 심리구조, 문화구조와 결부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Reich의 이야기 참조. 오세철갈(현상과 인식, 83년, 봄호) pp.129-149. 이 이해에 도움을 준다.

(70) 여기서는 이상실현의 실천적인 전략인식의 부재를 보게된다. 拙稿, "정보사회의 권력구조와 군중행동의 위기," 앞글, 참조.

(71) J. H. Turner, 앞책, pp.326-389.

(72) 어떤 사회에나 권력지향적인 속성을 엿볼수 있다. 이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속성일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비교적 더욱 특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순히 그 물건이 지니는 효용자체에 대한 사치성 욕구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의 사치벽 때문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어디까지나 대인관계적인 측면이 극히 고려된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에 자금을 융자해 주거나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니까 전시효과로서 이러한 소위 인상관리의 노력을 해 보는 것이다. 손님을 집안으로 모시고 두루 구경도 시키는 가운데 이집의 견고함과 교양이 높다는 점과 자력의 든든함을 과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며 자신이 무시 당하거나 공격당하고 일하기가 여간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상 여기에 대한 효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남은 초대하는 기업이 본인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방문하는 손님들도 실제 그러한 공식대로 맞추어서 반응하게 되는 경향이 큰 것이다. 회사의 과장수준에서도 자신의 집이 초라하면 과원을 초대하지 않는다. 자기집보다 초라한 집을 갖고있는 상사를 부하들이 인식했을 때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위가 여지없이 파괴될까 두려워 함인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기업에서의 행동패턴은 지극히 인상관리에 의한 상호 허위인식의 구조물의 지배를 받기쉬운 특징은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과잉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허세와 이 허세를 쫓아가는 적응적 권위주의가 짝을 이루어 맞아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허세가 밝혀지고 진실이 드러남에 따라서 거대한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간단히 붕괴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게된다. 이러한 허세와 적응적 권위주의의 영합 그리고 이에 의하여 생겨나는 허구의 의식에 의하여 지배되는 풍토를 낳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업전반에 불합리의 풍토가 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해 볼만하다. 사람들은 허세가 아니면 처신을 할 수 없고 불리한 상태의 어려운 경지에 빠지게 되니 자연 진실한 자신을 드러낼 수 없고 겸손이 결코 미덕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반 풍토와 행동양식의 그 근거는 바로 지나친 적응적 권위주의 성격이며 또한 자신이 약자되었을 때의 받게될 수모에 관한 지극한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인 것이다.⁽⁷³⁾ 지나치게 외형과 성장위주의 정책을 지향하거나 불량품이나 덜컹의 상행위가 남발하는 소이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상사는 부하들에게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가급적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부하들도 상사와 회사전반의 움직임과 향방을 파악하고자 눈치가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자기자신도 인식하며 동시에 타인에게도 공개되어 있는 개인과약의 부분, 소위 조해리창(Johari's window)의 영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작은 것이며 이는 실증적으로도 나타나 있는 것이다.⁽⁷⁴⁾ 따라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하고 자꾸 미루게 된다. 승산이 없거나 결론이 분명치 않은 주장은 하지 않으려 한다. 아직 대세(大勢)의 의견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을 먼저하지 않으려 한다. 어느쪽에 심정을 속시 다칠까 우려하여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대세가 확정되면 그 방향으로 주장이 급속히 진행된다. 그리고 토의 내용보다 소속집단별로 쉽게 편갈라지고 같은 편 내의 의견은 일사불란한 형식을 띤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은 유보되어 막후교섭에 들어간다. 공식적인 회의와 동시에 막후교섭의 二元化는 우리나라 조직행동의 한 특징이다. 막후교섭은 의사결정 과정에 어느 누구에게 심심함을 줄까봐 저어해서 그렇다. 어떤 결정적인 결과를 공식적으로 나타내면 어떤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나를 봐서라도 어떻게 그런 주장과 결정을 할 수 있는나의 설섭함이 생기는 따위의 경우이다. 눈치로서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막후교섭을 통하여 보충하는 것이다. 품앗이의 오는정 가는정을 해치지 않고 원만한 균형에 대한 관심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막후교섭은 때때로 술집에서 음주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거래업자간이나 상하간에 교섭은 예의관계를 벗어나 격식을 타파하는 힘을 빌리며 이것으로 의사소통의 문을 상호 크게 열어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말의 실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묵약⁽⁷⁵⁾이 되어 있으므로 의사소통이 열린다. 그리고 여기서 감추어진 생각들이 함하여 설섭함이 없는 결정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거대한 문제나 막대한 금액의 거래계약이나 투자기회등이 순식간에 결정되는 것이다. 평소애 부하들은 상사에게 잘 맞추어 행동하려고 하나 상사도 부하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조심을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중간관리자가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쥐고있고 쉽게 만장일치를 즉자 얻어낸다) 거래선끼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조해리

(73) 이것이 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적 현상으로도 나타나는데 이것이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오세철, 「조직 행동」, 정신분석학과 참조. 조직행동이론에 정신분석이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74) 오세철, 앞책, pp.137-138.

(75) 민속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된다. Turner, 앞책, pp.393-421.

창이 좁다는 의미에서 보듯이 근원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적으며 서로 조심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말이 적은 나라이다. 표현이 적은 나라이다. 자기 약점을 허세로서 은폐하는 나라이다. (일본은 겸손으로서 은폐하고 서구는 가급적 노출시켜 치유한다)⁽⁷⁶⁾ 눈치로서 해결하는 것이다. 좋은 표현으로 바꾸면 확실한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을 상호인식하기 보다는 지혜나 통찰력에 의존하여 대인인식을 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소위 서구식의 지식이나 자료를 바탕으로 둔 합리적인 논리에 의하여 의견을 조정하며 지식을 교류하는 토론(discussion)이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그 발달이 가능한 문화가 되어있지 않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서로 눈치껏 알아서 행동하며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예로부터 말의 조심성과 예의를 요구하는 풍토가 전수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걸려 있어도 서로 눈치만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또한 언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자꾸 유보하는 가운데 어느 세력의 부상이 드러날때, 확실한 권위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서 대세가 나타날때, 소위 권위의 흐름을 따라 대세의 흐름을 따라 자연적으로 결정되어가는 영향을 지닌다. 이전에 미리 결론을 내리거나 강력히 주장함은 어리석은 소치고 미성숙한 인품이라고 보아진다. 뿐만 아니라 어느누구의 과실에 대해서도 비판도 쉽게하지 않는다. 필자는 우리나라에 목표관리(M. B. O.)와 같은 기법이나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g)과 같은 기법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영풍토인지 의심을 해보는 것이다. 목표관리⁽⁷⁷⁾는 회사의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 부하들이 먼저 정한 후에 이것을 상사와 토론을 통하여 조정 함의를 보며 또한 일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확실하게 회귀(feed back)를 해주며 또한 업적평가도 토의 가운데 합의형식으로 해 나간다는 것이다. 감수성훈련⁽⁷⁸⁾도 보면 서로의 평소의 인간관계 및 사고나 행위에 대한 문제점들은 집단이 형성되고 회의를 통하여 서로 분석하고 비판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자기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타인의 행위가 나와의 관계 및 타인과의 관계 등 대인지각의 인식을 이끌어 내어 여러가지 조직에의 문제를 극복하여 조직풍토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모두 토론을 중시하는 기법인데 전자의 경우 과연 한국사회에서 부하들이 그 대화과정에 편한 마음으로 또한 충분히 토의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인가가 의문이고, 후자의 경우는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은 후에 서로 감정이 더 상하게 되어 끝날까 우려되는 것이다. 어쨌든 그냥 문제를 서로 잊은듯이 내버려 두기를 서로가 원하게 되는 것이다. 세월이 치유해 주는 방식이 우리나라 방식이다. 그리고 Sanlon Plan 과 같은⁽⁷⁹⁾ 위원회 제도의 이익분할 방식도 역시 토론형식의 따지는 일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에 적용상 어려움이 많다고 보겠다. 아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많은 것을 싫어하고 말 많으면 경박스럽게 생각하며 무엇을 토론하거나 따지는 습성에는 익숙하지 못하며 또한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규정대로 꼼꼼히 따지는 법을 전공하거나 이에 종사한 사람의 품성에 대하여 자주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고 냉정하다고 평하는 것을 보게되는 것도 이와같은 이치인 것이다. 서로 알아서 처신하며 대세의 흐름을 쫓아 권위가 드러날 때까지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좋게 좋게 지내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조직에서는 Goffman 이 이야기하는 인상관리(management of impression)의 능력⁽⁸⁰⁾이 발달하였고 또한 전체의 의미구조물을 중심으로 자신을 적용시키려는 성향이 매우 발달하였다고 볼 것이다. 이는 모두가 역할연기에 열중해 있으며 한바탕 연기를 하여 조화를 이루는 습성이 강한 것이다. 이를 人和라고 부르며 이를 중요시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예를 술집에서 본다.⁽⁸¹⁾ 서로 사전에 약속이 없었으면서도 과장, 부장, 사장의 배역을 즉흥적으로 새로이 정하여 덧붙여지게 조화있는 한바탕의 유희나 연극을 하면서 취흥을 틀어우어가는 풍경을 자주 본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양상은 배배로 진실을 검증할 수 없는 허위의 의식구조물을 이루기도 쉬운데 이를 중심으로 한 집합행동이 나타난다. 이는 진실을 바탕으로 둔 집합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을 뜻한다. 따라서 진실(또는 진리)과 합의

(76) J.H. Turner, 앞책, pp.159—178. 참조.

(77) W.C. Hamner & F.L. Schmidt, 앞책, pp.326—331.

(78) 앞책, pp.178—180.

(79) 앞책, pp.340—351.

(80) M. Deusch & R.M. Krau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London, Basic Book Inc., 1965, pp.203—211.

(81) 우리민족이 풍류와 놀이를 즐기고, 오늘날 유희업이나 술집이 크게 번창하는 것은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의식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물질문화속에서 우리들의 민족의 행동양식을 객관히 추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사료된다.

사이의 불일치가 빚어지면서 회사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다수결에 의한 강한 추진이 가능하다. 소수자의 영역이 매우 좁으며 이들의 권리는 매우 박탈당하기가 일쑤이다. 사회의 실재가 바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생기는 주관적 의미구조라고 보는 현상학의 입장을 빌리면⁽⁸²⁾ 우리나라의 회사조직에 서의 의사결정과 향방은 이러한 조직구성원의 뇌리속에 공유하는 의식구조의 틀을 공유하는 지식의 재고(在庫)에 의하여 권력이 발생하고 사태가 좌우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자의 입장을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 게 하고 있으며 또한 품앗이 관계로 볼때 접섭함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위기의 순간인 것이다. 이러한 주 관주의 의미구조물에 의하여 좌우될 영향이 큰 진실이 은폐되고 소수자가 역울함을 당한 위기에 놓이게 되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의미구조가 사회의 실재가 되며 진실이 검증이 될 가능성이 적은 사회에서 는 유언비어에 매우 취약성을 갖을 수도 있다. 인사관리나 인사고과, 그리고 회사의 정책이나 방향 그리고, 국가의 경제정책영역에 이르기까지 유언비어의 난무속에 사태와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취약성을 갖고있는 것이다. 따라서 역울하지 않으려면 다수를 파악하고 다수가 드러날 때까지 의사표명을 보류하며 적응하려 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다.

어떻하든 자신의 지위가 낮아진다는 것은 신분구조의 극악성과 그 큰 악영향에 대하여 뼈저리게 체험해 온 우리나라 전통하에서 감히 다수나 권위에 도전하는 심정을 갖기는 어려운 일인 것이며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대단한 것이다. 이렇듯 지위의 하락은 차라리 죽음과도 바꿀수 있을 정도로 굴욕을 느끼는 일이며 종전에 잘살던 사람이 못살게 되는 것도 참을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복지기금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 기금에 기부하는데 인색하며 또한 소득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힘들다는 생각이 가능하다. 모처럼 상승시킨 지위와 재산을 양보하는 것은 용납기 어려운 사고방식이므로 소득의 재분배와 평 등으로 나아가는 정책의 입안들이 통과될 전망이 매우 적은 것이다. 따라서 사회전반적으로 해방사상은 있으 며 평등사상은 근본적으로 매우 발달하기 어려운 풍토이다.⁽⁸³⁾ 그리고 재산에 관하여 부를 계속 축적하는 것은 물욕보다는 세력의 증식분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빈곤을 겪고 있는자도 자기자신에 대하 여 매우 수치감을 느끼며 자신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거나 행동으로 잘 나타나지 못한다. 부끄러움 때문 에 스스로 움지도 숨어들어가는 경향은 통치자로 하여금 빈곤의 실태와 빈곤문화, 그리고 그 소재를 정확 히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빈곤의 치부를 감추는 것을 매우 용이하게 한다. 이 렷듯 지위향상, 권력지향적 강박관념은 사회전반에 충만해 있다.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진권환 격 증세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위 상실증, 결핍증의 증세이다. 이것을 전통적인 유산으로 파악하는 것이 의미있는 것이다. 이러한 증상이 문화적 유산으로 남아오는데 현실의 세계에서 또다시 상실이나 결핍 이 생기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며 면목이 없는 일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업에 실패하거 나 강등 해고되었을 때 자살의 취약성이 매우 높다고 볼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부끄러운 수치심과도 통하는 것이다. 이렇듯 남이 나를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자기방어적인 행위로 굳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예(禮)를 중시하는 행동, 많은 선물, 융숭한 대접 그리고 의 형을 크게 하려는 품부림등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가 외채를 크게 들어와서 더할만 크게하여 실속이 적은 경제구조와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불량품이 속출하며 포장만 그럴듯하게 함으로서 크레임이 걸려오는 수가 많다. 이것도 이러한 전시효과와 결치레를 중시하는 행동양상의 소산으로 볼 수 있음직하다. 그리고 같은 수출업체끼리 파다경쟁 덩핑 등의 양상도 역시 개별적인 지위향상 성공지향을 위하여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행위패턴이라고 보아진다. 아등든 이렇게 하여 권력지향적, 또는 기존의 권위에 의존한 적응적 권위주의는 자신과 경쟁했던 자신들의 약자와 패자에 대하여 지극히 엄한것이 또한 특징이다. 관용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자기자신과 그렇지 못 한 약자사이에는 넘을수 없는 매우 큰 확실한 경계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철저히 차별화시켜 안심할 수 있는 신분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박탈하는 것이다.⁽⁸⁴⁾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

(82) 이영호, 앞함, (현상파인식, 79년, 겨울호) pp.69-86. 참조.

(83) 노조의 상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하지 못한다는가 복피가 평등을 역행하며 심각한 재취획의 상대로 들어간 배반 된 현명의 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정도가 유난히 심하다는 점이 민족특성의 영향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본다.)

(84) 우리나라의 의회주의가 발달할 수 없는 문화전통의 이유중 하나가 될 것이다. 패자에게 일정한 틀(rule)의 범위내

서 언급할 수 있다. 한가지는 우리나라의 유교전통이 신분화와 차별화를 강조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이것이 걸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다른 한가지는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듯이 과잉의 적응적 권위주의 성격때문이다. 자기의 조상이 신분의 구조속에서 당해던 설움,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 출세를 해야하며 남의 위에 올라가야지 결코 밑에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선조들로부터의 당부와 가르침, 그리고 관직을 얻음으로서 가문을 빛내며 묵석술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고 조상들의 빚을 풀어달라는 요구들을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영향을 받아왔을 것이다. 가령, 자기가 처우받지 못한 설움, 남에게 모진 천대와 멸시를 받던 설움을 자식들에게는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미 조상들이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상들은 자부심과 차별의식을 심어 넣어주어 왔던 것이다. 우리들은 상것과는 근본이 다르다는 양반특권계급의 의식인 것이다. 이러한 옛날의 엄격한 신분제에서 열등한 자기신분을 탈피해야 하겠다는 강한 의식은 구한말 외세의 각축으로 말미암은 격동기 때에 신분제도가 다소 흐트러졌을때 수많은 상인들이 양반을 돈으로 배수하는 현상으로 보아 얼마나 이것은 신분의 향상을 열망했는가 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⁸⁵⁾ 그리고 해방후 치열한 교육열기도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관직에 등용문인 고시시험의 치열한 경쟁도 그예로 들어볼 수 있다. 낮은 신분구조를 탈피해야겠다는 생각은 또한 남과 구별하여 위에 올라서야 하겠다는 의식과 통한다. 즉,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신분구조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다고 보다는 여전히 강하게 존속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주고있는 것이다. 즉 새로운 신분계급이 재편(再編)되고 있는 것이다. 상인(商人)문화가 양반문화를 흡수한 것이며 자본가나 기업가가 양반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과거의 욕됨을 설욕하여 한을 풀겠다는 생각 또한 욕된 길로 다시는 들어서지 않겠다는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다.⁽⁸⁶⁾ 우리나라에 무속신앙 또는 오늘날 기독교에 귀의하는 자가 많음을 보는데 그 심층구조도 어느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현실적인 실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심적인 위안이 되는 것이다. 선택받은 자와 세속인이라는 다른 차원의 구별의식이 가능하고 종교의 힘을 통한 확실한 승리의 삶의 보장은 매력적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마저 없으면 강박관념속에 괴로움을 당하거나 자살할지도 모를 사람들이 그중에는 많은 것이다. 그리고 재산을 악착같이 축적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옛날 조선시대에는 상인이 사유재산을 추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였다.⁽⁸⁷⁾ 그러나 이제 이것이 가능하며 또한 부자는 양반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구조의 엄격성과 그 유산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구조 속에 여전히 존댓말과 하객말사이의 구분이 매우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더라도 잘 이해된다. 그리고 이것은 옛부터 얼마나 신분구조를 철저히 가려왔는가를 엿볼수 있는 것이다. 이는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의 행동을 관찰할 때에 이 부하가 얼마나 능률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데 관심보다는 얼마나 나에게 복종을 잘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공손한 태도를 갖는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종은 자기와 호혜적인 품앗이의 構으로서의 인간관계의 형식, 즉 앞으로 자신의 지위를 더욱 높여나가는데 얼마나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관계인가를 보는 관점에서도 살피지는 것이다. 따라서 복종은 잘하고 또한 현재 손잡아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대항하는 같은 편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그사람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회사에서는 큰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회의석상에서 상사에게 지지하는 발언만(아침하는 발언만을)⁽⁸⁸⁾ 해 주어도 상사로부터 크게 호감을 사서 능력인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에 뼈빠지게 일을 하더라도 성격이 곧아서 상사에 비판적인 직언을 하는 입장을 취하거나 복종하는 태도가 시원하지 않으면 자신의 수고는 아랑곳 없는 것이다. 상사는 부하들의 말버릇, 태도, 언어사용에 신경을 쓰며 결재받으러 오는 사람의 이러한 형식의 행동여하를 먼저 살피며 이러한 인상에서부터 얻는 호감여하에 의하여 재가가 거의 좌우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사는 부하와 대화가 자

에서 불이익을 주는 한계가 지켜지지 않는 풍토이다.

(85) 鄭興種, 앞책, pp.177-300.

(86) 신문에 관한 비교의식은 내국인에 대한 것이며 국제인들 사이의 비교의식은 민감하게 하지 않는 준거들을 갖고 있다고 보아진다.

(87) 재산이 있으면 관청으로부터 증여를 요청받거나 불호의 또는 형제불화죄등의 막연한 이유로 불기를 두들겨 맞고 재산을 내 놓을 수 밖에 없다.

(88) 우리나라 조직체의 상사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가려내는 심리가 결여되어 있다. 이것은 같은편 단물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 단점은 별로 문제시 하지 않는 문화전통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하다.

유스롭게 방만하게 흐르는 것을 막기위하여 자신의 사무실을 깊이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구체적인 벽을 통하여 경계지으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상사로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낀다. 그런데 상사가 부하들간에 사무실을 별도로 하여 권위적 구분을 하려는 시도는 오늘날 기업환경과 관련시켜 볼 때 매우 위험한 관리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다.⁽⁸⁹⁾ 오늘날은 정보의 시대이며 환경의 변화가 급변하는 응용물이의 시대이며 정보가 폭포처럼 쏟아지며, 신속성있게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대처해야 하는 이때에 경영자는 종업원 속에 파묻혀 진두지휘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며 기업내에 정보가 가장 많이 교환되는 중심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방을 부하들의 활동과 격리시켜 두려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 가정의 환경여건속에서만 가능한 경영방식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정보의 빈곤때문에 능률적으로 경영을 하기 힘든 것이다. 정보의 원천이 심복인 자만을 통한 매우 단일한 경로를 취하고 있음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의 원천을 다각도로 하여 접근하지 못함은 이러한 신분구조에 대한 강한 차별화 의식과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심리때문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지극히 경직화된 관료체제를 구축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유의해 볼 것은, 신분구조의 의식, 차별화시키는 노력에 의하여 생겨나며 또한 적응적 권위주의에 의하여 권력지향적인 성격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관료체제는 서구의 합리적 관료체제와 비록 몇가지 점에서는 비슷한 현상을 보이지만 그 원인이나 속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관료체제는 사람 지향적이지만 서구의 기업은 일 지향적인 관료체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권력적인 속성에 의한 계층화 경직성이지만 서구는 목표지향적 객관화된 틀에 의한 의사결정구조에 의한 계층화 체계화 경직성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료체제는 Weber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관료체제가 나타날 것임을 이야기한 그러한 관료체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종업원의 활동의 자유나 재량권이 크게 위축되고 환경의 변화에 신속성을 크게 상실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관료체제가 서구의 영향을 받은 기업모델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찬동하기 어렵다⁽⁹⁰⁾(일본의 경우를 참고로 보면 일본은 규범이 적어 탈관료적이라고 할 수 있다). 권력지향적 관료체제의 특징은 비단 기업단위내에서의 현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기업밖의 정치체제와 기업사이의 관계로서 또한 특징있게 파악된다. 기업주는 정치권력을 향하여 역시 이러한 기업내의 계층적 연계를 연장시킨 모습이다. 관주도형 경제풍토의 양상이 불가피⁽⁹¹⁾해지며 이는 어느 집권자의 의지로서 이 양상이 이루어진 성질의 것이라기 보다는 이와같은 기업체질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문화전통에 의거한 전반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권력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기업가의 생각은 국가의 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좌지우지 된다고 사고하는 경향이 매우 높으므로 마치 기업내에 부하들이 생산성과 효율을 넘어서 지나친 복종을 하듯이 국가시책에 호응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서 파인반응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기업내의 경영합리화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오히려 대정부관계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는 경영합리화에 소홀하며 경영체제의 혁신을 부진하게 하는 원인이 될수도 있겠다.⁽⁹²⁾ 이러한 형편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기업체질이 관료적이라고 할 때 이 관료조직은 기업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시도한 소산물로서 생긴것 또는 Weber가 말한바와 같이 합리주의 정신의 발달, 자본주의 발달과 더불어서 나타난 속성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세계적인 자본주의 구조의 틀과 연계되어 있는 서구적인 성격의 관료조직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우며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전통에서 유래된 사람중심의 권위적 관료조직이라는 것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⁹³⁾ 다만 국제적인 관제로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세계적인 권력에 향한 우리기업의 적응적 권위주의 속성으로 파악해보는 입장에서이다. 관료조직의 원인은 어디서 찾느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잇슈를 제기한다. 즉, 관료체제를 서

(89) 오세철, 앞책, pp.177—296, 참조.

(90) 隣相震, “관료적권위주의하의 민주주의 전망”(『한국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앞책) pp.9—36 참조—필자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다.

(91) 관주도형경제정책의 필요성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는글. 김진균, 앞책, pp.17—49 참조.

(92) 현상과 인식, 경영학이 기능적인 정보학으로서의 발달됨과 경영합리화가 소원한 이유 밝힘.

(93) 종속이론에서 권력적인 종속분석은 인정하나 우리나라의 관료체제의 조직특성까지 이로써 설명하는 입장은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권위적 관료주의는 세계의 자본주의 체제와 상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구의 합리주의에서 찾느냐 우리의 전통주의에서 찾느냐의 문제이다. 판료조직을 서구와 같은 합리주의 결과로 보는 경우는 서구와는 의사결정방식이나 조직절제등을 달리함으로써 판료제가 안고있는 경직성을 극복하는 문제해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서구의 영향을 경계하여 오히려 우리 문화전통을 찾아 존중하는 방향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판료제를 우리 문화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경우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원적인 우리의 의식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며 새로운 문화운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몽든 정치권력에 밀착하려고 하는 기업속성과 기업내부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소극적인 관심은 기업으로 하여금 한탕주의 정신에 지배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업가들의 체제와 적응적 권위주의의 성격의 짝함은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불신을 낳기에 족한 행위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밖에도 우리나라 판료체제는 이점이 특징있다. 정부조직이든 기업조직이든 경영자나 관리자는 보편주의 정신이 부족하고 특수주의 정에 의거하여 움직인다는 것이다. 합리성이 공적인 입장에서 견지되기 매우 어려운 입장에 있다.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은 수많은 호혜적 품앗이 관계에 둘러싸여 역할감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연고주의 정실관계와의 단절이 쉬운 일이 아니다.⁽⁹⁴⁾ 환의 경과 품앗이의 정 모두가 이러한 의미에서 조직의 합리화에 역행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아진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판료조직이 비합리적인 판료조직으로서 서구의 합리적인 판료조직과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잉의 적응적 권위주의는 비단 부정적인 효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의 거대한 원동력이 되기도 할 강한 동기유발의 근원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⁹⁵⁾ 구한말 국제경제와 외국문물의 유입에 힘입어서 봉건체제가 무너지게 되자 오랫동안 순위기조차 거북한 정도로 답답하고 억울했던 신분구조가 해체되자 이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신분 가문의 신분을 향상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었으며 이미 특권계층이었던 양반도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이다. 그런데 양반의 각위의 배배가 성행하였음은 이미 언급하였거니와 그렇지 않아도 외세가 우리나라에 진입을 꾀하는 차에 스스로 외세를 끌어들이 자신의 지위와 세력향상에 활용하려는 행동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파들은 대체로 유학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수구파들이었고 이들은 어떠한 개혁도 막으려는 보수주의였다. 물론 이들도 자신들의 보수적인 입장을 사수하고자 외세를 등에 업기도 하였음은 유의해볼 일이다. 반면 또 한편은 실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화파와 연결되는 쪽이었다. 이들은 주로 일본쪽과 가까웠는데 일본의 힘을 빌리려 하였다. 이들의 어느 쪽이든 동족을 배반하고 당국으로 나가는 길을 채족한 결과를 낳는데 전자는 세국주의의 고집에 근대화를 늦게 하였고 후자는 외세의 진입을 쉽게 하여 식민지화의 길을 인도한 셈이었다는 비난도 있다. 물론 이들이 행동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가장 큰 변할 수 없는 맥락은 신분이 재편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과정에서 끈질긴 신분개선의 노력과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세라도 끌어들이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려던 저악한 노력이었다. 일제시대에 배국노가 나타나고 또한 많은 의병이나 독립운동가들이 수많은 배신자들의 손에 의하여 잡혀가고 처단되었던 사실이 가슴아픈 것이다.⁽⁹⁶⁾ 중국에 의지하고 일본이 왔다가고 또 미국이 가까워지고 또 일본이 다가오고 한 시대의 희을 갖는 때마다 외세가 우리나라에 깊이 관여하고 또한 이러한 외세와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그 당대에 특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⁹⁷⁾ 사태주의, 식민주의사상, 해바라기 성향이라는 비판은 모두 이러한 맥락과 관련된다.⁽⁹⁸⁾ 모두 극렬한 신분의 개선의지가 빛게하고 있는 권력지향적 과잉행동 때문이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역할이동을 하면서 중국적으로 정치지향적 권력지향적인 성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술자들도 결국 관리자, 그리고 부의 축재가 어느 정도되고 가능하면 정치에까지 지향하고, 교수도 정치, 사업가도 정치, 의사도 정치, 목사도 정치, 군인도 정치, 모든 분야에서 궁

(94)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과 통한다. 이러한 특수주의 의식과 유대는 상부상조정신과 오히려 비공양적으로 간주되고 또한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객관화를 견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그리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설정이 어렵다.

(95) 유사한 견해를 가진 글. 김경동,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앞책 pp.79-119.

(96) 40년간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강화된 의식은 힘이던 제일이라는 권력만능의 사고이며 정의와 진리가 통하지 않고 자기발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가치의식 혼란을 이때 남겼다고 볼 것이다.

(97) 거역의 외채를 무척임하게 끌어들이거나 외국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힘입어 날뛰는 무리들이 개탄스럽다. 더우기 재계나 경제, 학계에서의 이종 극적자들의 활동이 있다면 위협스럽기까지 하다(84년 정기국회때 거론)

(98) 우리나라 외채가 무려 오백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자본에 깊숙히 종속됨은 국내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민족의 실질적인 재독립이 요청되는 시기라고 하겠다.

극적으로 지향하는 뚜렷한 방향이 정치인들이다. 현재 집권상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며 그 변화도 우리나라 심층구조측면에서 볼때 어렵게 되어있다.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이러한 행동패턴은 모든 사람을 중앙으로 향하게 한다. 명절때 지방의 사람들이 대거 상경하여 권력자를 방문하는 모습을 이와 관련하여 이해하여 볼수 있다. 신분구조를 개선하려는 강완의지는 때때로 망국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교육열, 공업화과정에서는 큰 원동력으로 나타났다. 어느 다른 나라와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급진적으로 공업화가 촉진되었다. 해방후에 갑자기 교육열이 불어닥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입시경쟁이 나타났고 지옥현장을 방불케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열로 발미암아 우수한 두뇌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마침내 오늘날은 정보시대이며 기술과학이 나라의 국력과 경제적인 우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은 기술과 지식의 축적이 국력의 판건이라는 권력논리에서 볼 때⁽⁹⁹⁾ 매우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폴론 McClelland가 정의하는 성취동기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이다. 자신의 권력을 높이고 신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낮은 해외에 뛰어드는 것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혀 불사하는 심정들이다. 해외이민이 폭발하고 해외진출이 눈부시었다. 능히 동양의 유대인이라는 별명을 듣기에 족하였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은 국내에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돌아오며 국내인과 상대적인 인간관계의 대비(對比)를 하는점이 특징있다. 즉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이 어디까지나 국내인이다. 이들의 해외진출과 성공을 위한 동기가 되는 목적적 情은 恨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성공의 소산은 결국 국내에 돌아와서 과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외국 사람들과 결코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집단에 동화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즉, 준거집단이 여전히 한국인 것이다. 이들의 해외진출과 성취는 결국 독자적으로 만족을 누릴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심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이 성공하면 반드시 고국을 돌아보고 국내의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에 감탄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며 또한 그 인정에 만족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한다. 또한 국내에서 자기를 업신여기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성공을 내보란듯이 보이며 승리감을 얻는 심리가 깔려있는 것이다. 때로는 그들은 성공을 과장하기도 한다(흔히 모국어틀 쉽게 잇는 것이 일견 여기에 반론이 될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다. 이것도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한 심리가 깔려있다고 볼 것이다. 방법은 어리석지만 심리는 마찬가지로 하겠다). 다시 요약하면 이들의 행동은 조국을 등진 행동으로서 단정 지을 수 없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오히려 이들의 사고속에는 바로 한국인이 언제나 준거집단 비교집단으로 남아있는 것이며 어느 다른 민족보다 복원력이 크다고 할 것이다.⁽¹⁰⁰⁾

우리나라에서 恨의 情과 품앗이의 情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행동양식은 가족중심주의라고 보아진다. 근대화과정에서 새로이 신분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신분개선을 위한 노력은 주로 가문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족주의에는 소위 恨을 풀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음과 동시에 수단적 방안으로서 품앗이의 인간관계가 활용되는 것이다. 어느 가족의 경우는 가족원중 어느 한 사람의 출세를 온가족이 함께 도모하고 출세한 일원은 얻은 결실을 가족전체와 나누는 방식으로 이를 갖는 호혜적인 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호혜적인 관계는 가족내부관계를 넘어어서 마을사람, 친척, 동창친구 등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자신의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 예로부터 계(契)의 전통이 이와 연관된다. 그러나 이러한 호혜적인 품앗이 관계는 가려져 있다.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목표달성에 알맞는 품앗이 관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근대화 과정에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가족내 심각한 가족내 권력관계와 권력갈등을 보게된다. 대개의 경우 애정의 이름아래 은폐되어 있지만 실체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투쟁관계가 처절한 것이다. 대가족시대의 넓은 범위의 품앗이 관계가 핵가족시대에 좁아진 것이다. 부모들은 넓은 품앗이 관계를 요구하고 자녀들은 출가하여 좁은 품앗이 관계의 범위로 축소하여 생각하려는 데 문제의 근원이 있다. 특히 아버지와 장자사이의 권력다툼은 치열한 양상을 띠는 많은 예를 재거나 정계의 가문에서 적절히 찾아볼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고부간의 갈등도 심각한 것이다. 품앗이 관계의 범위

(99) A. Giddens.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1, pp.3-5, 91-97. 참조.

(100) 결과적으로는 때때로 민족을 등지는 경우가 있으나 심리적으로는 고국지향적인 근본성향을 이해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속에 들어가는가 않느냐는 사회전반에서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그 차이가 심한 것이다.

다음은 한의 성과 품앗이 정으로 결합된 문화전통으로서 가족주의 행동양식에 관련시키면서 우리나라 리더십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리더십의 경우는 권력재생산을 지향하는 속성으로서 한의 **情**과 관련이 있고 그 접근방법은 품앗이 **情**의 관계로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을 품앗이 관계로서 파악함을 호혜적인 역할 교환의 **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된다. 일본이 신의의 관계 전인격적인 관계로서 리더십이 가능한 반면 서구에서는 보상관계 계약관계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품앗이는 타산적인 장기적인 역할교환과 이에 따르는 고마운 **情**이 수반되어 있는 관계이다. 일본의 전인격적인 절대적인 충성이나 서구의 물질적 객관적 가치들의 교환형식을 통한 동기유발과 차이가 난다. 합리성을 넘어서서 **情**을 주고받는 품앗이 관계는 원래 수평적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는 신분향상을 위한 조직구성원의 수직적인 관계맺음의 수단이나 권력향상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리더십유형으로 품앗이를 해석해 봄은 확실히 확대해석이 된다. 수평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직적 관계의 의미도 지니기 때문이다.⁽¹⁰¹⁾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유형에 관한 성과는 집단 충성이 아니라 리더와 어느 종업원 둘사이의 개별적인 호혜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품앗이는 서로 역할을 주고받는 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베푸는 쪽의 호의를 받아두는 것이다. 베푸는 쪽은 반대로 언젠가 받을 것을 무언중에 기대하며 베푸는 것이다. 절대 일방적인 자기희생적인 아카페(Acape)적인 베푸는 아닌 것이며, 상호타산적이며 장기적인 상부상조적인 **情**의 보답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다. 품앗이에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자극적인 강화제로서의 효과보다는 그것이 주는 인간관계의 의미를 보다 중요시 한다. 그리고 그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기발전에 도움을 주는 이익이 있다는 결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반경과 **情**은 쌍무적인 것이며 타산적인 것이며 상대적인 것이다(일본의 경우 인간관계는 **情**의 관계를 넘어서 신의의 관계이다. 상사와 부하간에 맺어진 오야붕-코붕의 관계는 절대적인 성격을 지닌다. 섭섭함이 없고 무조건적인 관계이다. 물론 선악의 구분도 아니고 호불호도 문제삼지 않는다.) 품앗이 관계에 있어서 베푸는 쪽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실례가 된다. 이는 품앗이 관계를 거절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받는자는 즉각 갚는 관계를 지양한다. 이것은 깨끗이 관계를 청산하자는 의미가 자주 내포됨으로서 실례가 될수도 있다. 받는 즉시 금방 갚으려고 서두를때도 상대방부터 책망을 받는다. 그리고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않는 것이 더 발전된 품앗이 관계이다. 그러나 자꾸 한쪽만 베풀고 또한 베풀자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받은자가 베풀지 않으면 베풀자가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화제(話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시경과정을 거쳐서 회복된다. 회복하는 방법은 용이하다. 다시 품앗이 관계를 재개하면 된다. 만약에 섭섭함이 지속되면 품앗이 관계가 끊어진다. 품앗이 관계의 상대로서 실격(失格)이 되는 것이다. 품앗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는 호혜(그것이 비난할만한 일임을 알고서도 서로 허물을 덜어주는 호혜, 서로는 서로에게 그것이 찬성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호혜)도 포함된다. 회의시에 한번은 내가 동의를 했는데, 또 한번은 상대방이 자기에게 동의를 해 주어서 의사결정상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합리성여부, 진실여부, 능률여부, 가타부타의 여부는 그 다음 문제일 경우가 많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섭섭함을 느끼고 이것이 거론된다. 그리고 이것은 회복되어야 한다. 즉, 이때 구성원의 행동은 이것이 옳으나 회사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를 넘어서서 인간관계 즉 품앗이 관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인 조직관계가 불능한 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회사내에서 부서간에 서로 봐주는 풍토가 이루어지고 소위 Parkinson's Law⁽¹⁰²⁾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조직이 직무량과 관계없이 자꾸만 비대하게 되는 현상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고 회계, 재무분야의 controller와 cross-check 방식이 불가능 해 지기도 하는 것이다. 회사내에서 또는 회사밖에서 선물이나 뇌물이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는 요건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평시의 품앗이 정은 서로 협동적이라는 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합리성 추구와 공공성을 저해하는 나쁜 면도 크다. 이러한 리더십과 관련하여 유의해볼 것은 부정적 재제(negative reinforcement)를 행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우리 문화유형에서는 상을 줄지언정 벌을 주던 수급이 잘 안간다. 물론 벌을 주는 벌을 피하기 위하여 손실을 감

(101) 필자가 품앗이에 관하여 김주희 교수와 견해를 달리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102) 김경돈, 사회학, p.325.

당하지 않기 위하여 회피적인 순응적 행동이 일시 유발되나 자기가 상사로 부터 받은 벌에 대해서는 늘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다. 즉 그것이 합리적 여하를 떠나서 나쁜 情을 받은 것이 되고 이것이 심하면 부정적인 태도로써 반드시 갚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곧 졸속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상사(上司)로 나타나게 된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을 품앗이의 차원의 틀로서 해석하지 합리적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사로부터 받는 부정적 품앗이는 恨으로 남아 갚음을 취하게 된다. 상사가 어려운 일을 당하여 특별한 힘조나 노력을 부하에게 부탁할때 어려워진다. 따라서 어느 종업원의 실적이 못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무조건 긍정적인 보상을 계속하면서 실적과 관련없이 정을 베푸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다려보는 수가 최선의 방책이다. 그렇지 않고 실적에 따라 부정적인 보상을 주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처사일 수가 많은 것이다. 서구에서는 업적에 따라 그러한 상벌을 행사하는 경우가 합리적이라고 본다. (물론 부정적인 강화를 Skinner와 같은 학자는 나쁘다고 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오히려 잘못된 사람도 함께 보상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칼한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비교의 영향력이 심대하지 않는 경우) 품앗이의 관계를 잘 맺는 상사가 존경을 받는다. 그리고 리더십의 성패는 바로 이러한 품앗이에 의한 존경을 받느냐의 여하에 달려있다.⁽¹⁰³⁾ 그리고 이 품앗이의 범위는 복수주의를 넘어서서 조직구성원 전부에게 해당될 수 있는 보편주의정을 갖을 때 리더십 행사가 더욱 용이하다.⁽¹⁰⁴⁾ 즉 수직적으로는 존경의 情, 수평적으로는 보편적인 情으로 전개되는 품앗이의 情이 올바른 리더십으로 나아간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같이 리더십의 경우는 이러한 품앗이 관계를 맺는 개별적 노력가운데 상사로부터 베푸는 호의의 情을 받고 이에 보답하는 형식으로 추종하는 것이다. 서구에서처럼 어떤 유형무형의 객관적 보상이 적용되고 또한 이 보상이 성과와 함께 변동한다고 하여서 동기유발되는 것이 아니다. 상사가 부하의 노고에 대하여 빛을 느끼고 이들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보상의 증가인 경우는 부하가 오히려 사양을 하는 것이다. 상사와 부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은혜를 지고 빛을 지고 있는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한 일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음날의 인간관계가 호혜적으로 계속된다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부하가 높은 성과를 나타내었을 때 즉각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상사가 고마운 정을 느끼는 것을 부하가 더 바랄 때도 있는 것이다. 즉 보상이 더 주워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되고 거부를 받게 된다. 상벌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위 情에 담긴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다. 때로는 성과를 겨냥한 조급한 즉각적인 큰 보상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때에 조그만 정이 담긴, 情을 표시할 수 있는 상사의 상징적인 선물이 더 큰 동기유발을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는 적절할 때에 한잔을 사면서 호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관심을 가질 것은 이러한 정이 담긴 오고가는 情은 관계 맺음을 통한 권력향상과 궁극적으로 관련된다. 이것의 근원은 신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상의 과제, 목적적인 한의 情의 배경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는 情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보다 장기적인 성격을 갖는다. 당장 보상이 주어진다해서 금방 행동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조직 구성원의 제산 중에는 오히려 먼 장기적 상태의 차원에서 자신의 지위향상, 권력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인가를 따져보는 것이다.⁽¹⁰⁵⁾ 따라서 직장에서의 동기유발은 상사와 자기가 이러한 자기의 권력이나 지위향상과 연결되어 있느냐를 중시하는 것이다. 즉 신분이나 지위향상을 위한 동반자관계, '우리'라는 관계에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끈질긴 것이다. 만약 그 관계가 확실하게 인식된다면 상사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금전적인 보상대우나 욕설이나 혹사를 받더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먼훗날 그 보답을 기다리는 것이다. 일시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충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품앗이의 정과 정의 관계는 face-to-face control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¹⁰⁶⁾ 이러한 상사와의 품앗이 관계는 비단 회사내의 생활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구와는 달리 이것은 인사관리의 영역이 비단 직장에 한정시킬 수 없고 종업원

(103) 오세철, 앞책, p.173.

유사한 내용의 실증결과를 재해석하여 볼 수 있다.

(104) 앞책, 앞글.

(105) Redin, Fiedler, Hersey & Blanchard 등의 정교한 리더십이론이 우리나라에 적용한계를 갖는 점을 밝힌 부분이다. 김남현(譯), 「組織行動의 管理」(P. Hersey & K.H. Blanchard 著), 經文社, 1984.

(106) W.P. Archibald, "Face to Face: The Alienating Effects of Class, Status and Power Divis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76, 41, pp.819-837.

의 전생활 영역에 관련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Total Management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것은 정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서로 기분이 좋아서 일이 잘되고 타협이 잘되는 논리이다. 그 사람의 가족상황, 흥건사도 관리자가 관심을 가져야하며 형제관계, 동창관계, 이성관계, 부자관계 또한 고향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잘 파악하여 적절히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관심과 품앗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판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회사측에서 보면 시간과 노력 물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충실한 현질을 얻어낼 수도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손실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혹자들은 우리나라 조직관리자가 주로 권력향상의 동반자관계인 인맥에 의존하며 호혜적인 역할들이 오고가며 또한 성과급에 근거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곤장 서구식의 원리원칙에 의한 관리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나 장단점이 있다. 이것으로 말미암은 해악이 크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것은 우리나라의 오랜 문화전통에 연유하기 때문에 당장 쉽게 고쳐지지도 않을 행동양식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욱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품앗이관계는 상사와 맺는 수준을 넘어선다. 동료와도 관계를 맺고 또한 비공식적인 그룹의 형식으로 부단이 품앗이관계를 맺어간다. 즉 회사에서의 관계만을 전부로 보지 않는 것이다. 다각도로 품앗이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품앗이관계는 아무나하고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위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품앗이 관계의 확대는 힘을 모으며 이것이 리더십의 권력부상의 형식이다.⁽¹⁰⁷⁾ 그리고 가장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민을만한 품앗이 관계는 무엇보다도 가족이다. 회사보다도 가족이 우선된다. 가족을 공동운명체로 생각하며 가족을 위하여 어떤 비행도 정당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역할갈등이 있을 때 대체로 가족을 더 중시한다. 가족은 한과 품앗이의 情이 교차하면서 가장 결집된 최소한의 단위이다. 사회도 믿기 어렵고 회사도 불확실하고 자신의 의지할 곳은 가족뿐이라는 사고방식의 진동이 이어져왔다. 그리고 품앗이 관계는 비공식조직을 통하여 확대되어 왔다. 기업의 비공식 조직의 발달은 전통적 맥과과 관련있다.(조선시대 정치체제가 상부든 하부든 병렬관계로 되어 있고 비공식 통치기구가 발달되어 있었다. 지방의 수령들은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 유력한 씨족의 자율적 임의적 엘리트 집단인 향안(鄉案)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당시의 유학자들은 이 집단을 통하여 자신의 불만을 해소시키며 지위향상의 기회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활동에서 술집에서의 만남은 매우 중요하며 유의해 볼 만하다.⁽¹⁰⁸⁾ 섭섭함을 쉽게 극복하고 회복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훌륭한 활동과 처신은 바로 직장생활의 평가의 직결된다.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으로서도 섭섭함을 푸는 이 장소에서 잘 처신 못하면(환용 못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되고 능력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리더십도 여기를 통하여 크게 발휘된다. 한국인의 직장인은 술집에서의 행동방식을 별도로 연습해 두어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17. 요약 및 맺음말

역사적이며 거시적인 문화전통의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과 조직행동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비교인류학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인과적 설명을 함께 시도해본 셈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전통을 정서의 문화라고 규정하여 보았다. 일본은 신의의 문화, 서구를 이성의 문화로서 인식하여 대조시켜 보았다. 그리고 정서의 문화전통은 행위의 목적적인 情으로서의 恨의 情과 이것을 해소하며 관계맺음의 방법으로서의 수단적인 情인 품앗이 情이 결합된 심층구조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근대화 과정과 조직행동 양상에 인과적 친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전통을 이해하기 위한 관건으로서 가족중심주의를 인식하였다. 이것은 특징있는 우리의 문화와 민족성을 설명하는 중심적 개념이라고 보아진다. 가족중심주의 사상은 유교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이

(107) 품앗이 관계맺음은 우리 문화전통에서 볼때 분명히 권력증식의 효율적인 방법이 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효율性은 조직개발의 理想性과는 別個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것이다. 연출에 의한 리더쉽은 권력증식에는 효율적이더라도 비인격적 억압이나 상호배타적인 계급갈등을 쉽게 낳는 단점이 있다.

(108) 문화특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임에도 여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했다. 품앗이 관계의 위기를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것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교는 일본과는 달리 중국대륙과 매우 밀접하여 항상 조심스러운 반응과 대처를 해야하는 여건에서 받아들인 상황을 고려하고 그 받아들이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졌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유교는 국가의 통치이념이 되었고 유학자들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아 양반지배계급이 되었다. 그리고 충효사상은 가부장제도, 대가족제도를 발달시키며 더욱 가족주의를 견고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신분의 차별화와 고착화를 촉진하게 되었는데 양반지배 계층은 약탈과 수탈을 심하게 하였고 이는 민중들에게 恨을 남게 되었다. 恨의 情은 여러가지 방향으로 현상들이 나타난다. 첫째 놀이나 유희 해학으로 풀어지는가 하면, 둘째 사머니즘 등 종교행위로 나타나고, 셋째 정신질환의 증세를 갖기도 하며, 넷째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는 주로 조직행동에의 영향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시대의 정치체제는 관계맺음이 특징이었는데 왕은 자신의 통치권을 독자적인 힘을 기르는데 의거하지 아니하고, 중국의 천자에게 추인을 받는 것을 천명의 지시로서 받아들여 관계맺음에 의하여 통치의 정당성을 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왕권은 신하들의 세력—이들은 문중의 배경, 지방 사림파들의 배경을 업고 있으며 유교의 명분을 따지는 자들로서 항상 왕권을 견제하여 왔으며 왕은 통치수행을 위하여 이러한 신하들과 타협하고 호혜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왕권은 약화된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방정치조직의 지방수령들도 서울의 세도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방의 명문세도들의 집단인 향안 또는 이들의 대표들에 의하여 구성된 향청들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행정을 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지방관은 막강한 중국의 세력과 군사력 때문에, 그리고 요새구축을 할 수 없는 지형적인 이유로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지 못하고 항상 중앙과 관계맺음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봉건제도의 발달이나 봉건영주와 독립된 지방권력이 등장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같이 조선시대의 정치체제는 외형적으로는 중앙집권제도를 취하고 있으나 상부이든 하부이든 모두 병렬구조로서 중앙의 권력이 지방에까지 강력히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리고 통치하는 방식도 사회적인 제도화에 의하여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인맥과 같은 관계맺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리더쉽이었다. 이러한 정치조직의 형태의 이유도 가족주의 발달에 근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민중들의 의식에는 恨의 情과 품앗이의 情이 생겨난 것이다. 恨의 情은 행위의 목적적 情으로서 억압적 신분구조로부터, 그리고 품앗이의 情은 이러한 恨을 푸는 수단적 情으로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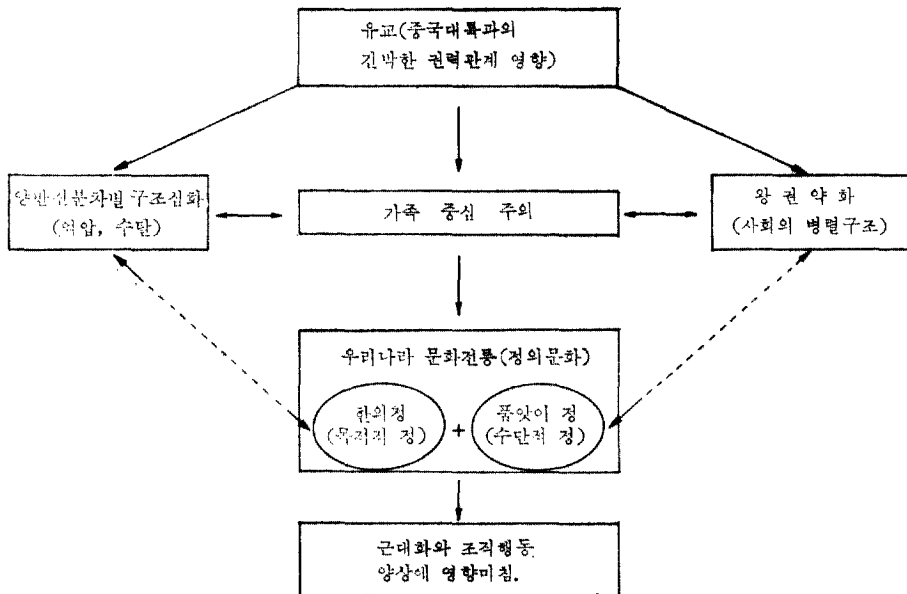


그림 우리나라 문화전통의 맥락

선사회의 명절구조로부터 비롯되며 상호 결합된 관계맺음의 형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진반에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恨의 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주주 및 지위향상을 꾀하려는 성향과 관련이 있고, 품앗이 情은 연고주의로 말미암아 가족끼리 이기적으로 상부상조하는 특수주의 정신을 넘지 못하는 도덕적인 낙후 상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겠다.

우리나라 문화전통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림과 같이 도식으로서 요약 표현하여 보았다. 이러한 문화전통과 관련하여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들을 들여다 보려고 한 것이다. 오늘날의 근대화와 조직행동 양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에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며 또한 거시적인 접근과 미시적인 접근을 왕래하면서 문화전통 속에서 특징지어지는 현상들을 밝혀보려고 하였다. 적응적 권위주의, 권력지향적 역할이동과 산업구조의 문제질, 눈치문화, 말이 적은 행동양식, 외형과 겉치레에 치중, 허세 및 전시효과를 위한 사치성, 실손하지 않는 행동양식, 의사결정의 모호성과 유보성, 막후교섭의 특징, 술집문화와 역할연기, 진실과 합의의 괴리수준의 심대함, 과잉보부, 의회주의의 어려움, 같은편 찾기(파벌적 관계맺기), 기업의 독립성 불가능(기업의 관료지향성), 사회의 관료조직의 특징, 근대화의 동기유발, 해외진출의 열기, 교육열, 의세결탁, 지나친 정치권력 지향성, 해외진출자들의 비적응성과 모국내 준거집단, 가족적 이기주의, 비공식조직에 의거한 리더십, 품앗이 관계에 의한 리더십유형 등 여러 내용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중에서 특히 권력지향적, 출세지향적 속성은 역력히 드러나는 것이다. 권력에의 민감도가 대단히 크고, 강한 세력자에게는 맹종하려는 경향, 권력의 주변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과 역할이동, 약한 자에게는 냉혹하게 차별화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권력자도 한번 헛점이 보이면 여지없이 타도당하고 보복을 당한다. 권력에 대하여 恨을 쌓아온 민족성은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의 이유가 되며 또한 그 필연성을 낳게 한다. 가족주의 형식에 바탕을 둔 계급구조와 恨의 情이 관련맺으며 또한 이러한 恨을 풀려는 수단적인 생활방식으로서 병렬적인 정치구조, 품앗이 情의 관계맺음의 전통을 낳게 되는 것이다.

권력을 동경하고 권력없이는 죽는 것과 같다는 양반지향적 전통은 철저하게 권위주의적 성격을 낳은 것이다. 상민은 양반을 넘볼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계급관계로부터 당하는 설움은 조상대대로 恨이 맺혀 전수되어 온 것이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翫나 자신을 지키고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의 행동양식으로서 권력에 대한 과잉반응, 눈치문화, 허세, 관계맺음, 강박관념 등 상부상조의 필연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품앗이의 情은 역할교환에 내포된 고마운 情의 교환인데, 이것은 상대적 쌍방적 호혜적인 인간관계로서 장기적인 타산적인 情의 교환인 것이다. 정치적 조직이 운영되는 양상도 이러한 스타일이며 오늘날 기업에서의 리더십 유형도 이러한 품앗이의 개별적 인간관계 개별적 충성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리형태가 서구와 일본의 중간영역에서 독특한 복합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이 제도적 집단적인 것이 불가능하며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는 호혜적 인맥의 형식으로 가능하며, 또한 압력단체가 더욱 강하고 비공식적인 조직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가족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외의 영역까지 관심을 갖고 대처하는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다. 보상체계의 적용상에 차이가 오구되며 그밖에 서구의 여러 관리기법들의 적용의 한계를 이와 관련하여 밝혀내려고 노력해 보았다.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에게는 매우 배타적이며 관리자이든 동료이든 하급자이든 이러한 관계맺음 중심으로 흑백구분을 취하는 경향이 크며 또한 이러한 관계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의 향상이라는 맥락에서 관계를 선택하여 맺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관계는 비록 情으로 맺어진다고 하나 수단적인 성격이 강한 품앗이의 情인 것이다. 권력지향적 적응주의가 나타나는데 이는 권력만이 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인 것으로 보고 그 접근방법이나 수단으로서 품앗이의 情을 맺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때로는 단결력이 매우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한 상대에 대하여 잔인성을 지니기도 한다. 상당히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며, 또한 지위향상을 위해 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이 있었다.

근대화 물결이 밀려오면서 열강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혼란기에 신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반의 적을 사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외세의 힘을 빌리려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외국세력의 각축과정에서 그리고 근대화의 새로운 물결을 타고 옛날 조상들의 신분이 양반이든 상민이든간에 이제 새로운 신분구조의 변

경을 가능케하는 확실한 기회가 나타난 것이고 자본가는 마치 옛날의 양반과 같은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가 열심인데 이것은 오늘날 근대화의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구조가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이외에 산업구조의 경직화와 비합리적 관료주의(가부장적 관료체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문화적 특성에 근거하여 근대화와 조직행동에 관하여 역사적 인과를 밝힘과 동시에 비교문화적 접근도 아울러 논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은 매우 독특한 성격이 있으며 사회의 제반형성과 기업의 조직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의 전통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의 이러한 방식의 전통의 이해를 위한 이론모형을 만들어 보고자한 이 논문에서는 좀더 엄밀한 논증이 더욱 요청됨을 밝혀두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역사학, 인류학, 일본, 서구문화에 대한 분야의 도움을 받아 추가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